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 문학 연구*

박 태 일**

차 례

- | | |
|-------------------|-----------------------------|
| 1. 백석과 번역 | 4. 발굴 작품과 조감 |
| 2. 작품의 실증적 잘못 바꾸기 | 5. 백석의 번역론을 향하여 |
| 3. 가명 논의의 검증과 확정 | (붙임) 재북 시기 백석 번역 문학 죽
보기 |

국문초록

이 글은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 문학에 관한 실증적 점검을 통해 기존 정보의 잘못을 바로잡고 기워 온전한 문헌지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논의는 세 가지다. 첫째, 이제까지 알려진 재북 시기 백석 번역 문학은 낱책 경우, 실물 확인이 어렵거나 백석 저술이 아닌 것이 7권이다. 낱글 경우는 중복 기록이나 글 이름, 잡지 이름, 낸 해달날 기록 잘못이 20군데에 이른다. 그들을 바꾸고 확정된 재북 시기 백석 번역 문학은 낱책 32종 32권과 낱글 43회 51편이다. 둘째, 현재 알려진 번역가 백석의 가명은 여섯이다. 그 가운데서 번역물의 무거운 비중이나 범위, 적확하고 창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1031197)

**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의적인 문체로 보아 박일파와 리세희는 백석과 동일인임을 확정한다. 나머지 넷은 번역 태도나 말씨, 활동 시기로 볼 때 백석과 엮기 어렵다. 셋째, 이 글에서 발굴한 백석의 번역 작품은 백석 기명과 박일파·리세희 기명으로 나온 낱책 13종 26권, 낱글 22회 26편이다. 그 안에는 북한 바깥 연변과 모스크바 출판본도 포함된다. 이들을 기존 확정분에 더하면 현재까지 갈무리한 재북 시기 백석 번역의 총량은 낱책 50종 58권, 낱글 66회 71편이다. 북한 초기 문학사에서 최대 번역가로서 백석의 걸음걸이가 뚜렷하다. 새로 마련한 문헌지를 바탕으로 백석의 번역 문학론으로 들어서는 문이 활짝 열리기 바란다.

주제어 : 백석, 북한문학, 북한 번역 문학, 백석 번역 문학, 박일파, 리세희

1. 백석과 번역

우리 근대문학사 전통 가운데서 짧은 시일에 드넓게 겨레의 사랑을 받게 된 작가가 백석이다. 1980년대 앞머리, 시 연구자를 중심으로 학문 공동체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시민사회 깊숙이 그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뿌리내렸다. 그런데 그에 관한 정보가 시민사회나 언론 차원의 확산 과정에서 부정확하게 전승, 재생산이 이루어진 자리는 적지 않다. 기녀 ‘자야’와 이루었다고 하는 연애담이 그 하나다. 거기다 을유 광복 뒤부터 북한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그를 향한 유별난 관심에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미발굴 창작 동시집이 대표 본보기다. 재북 시기 백석은 시인보다 번역가나 어린이문학가로서 중심 활동 영역을 다듬어 나갔다. 그런 까닭에 그 성과를 온축해 주는 어린이시집 4권 가운데서 『집게네 네 형제』를 제쳐 둔 나머지 3권¹⁾이 미발굴로 남아 있는 아쉬움

은 크다.

재북 시기 백석²⁾이 어린이시 창작보다 집중적이고도 한결같은 활동을 보여 준 자리가 번역이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백석은 소련군 통역과 작품 번역으로 공공 활동을 시작했다. 통역가, 번역가로서 자기 동일성과 문학적 정위를 뚜렷이 한 셈이다. 그런 모습은 1950년대 전쟁기와 전후기로 나아가면서 더욱 기세를 올렸다. 백석의 뛰어난 어린이시 창작은 소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권 작품과 이론의 번역 활동을 거듭 하면서 그들을 자기 것으로 녹인 결과라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사회주의 북한 체제 아래서 백석 문학의 본령은 번역에 있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우리쪽 관심은 단편적이지만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정선태·송준과 같은 이가 앞장 선 결과다. 그럼에도 오늘날 그의 재북 시기 번역 문학³⁾에 관

- 1) 1957년 6월과 1958년 5월 사이에 강훈의 『산막집』과 함께 백석의 『네 발 가진 메' 짐승들』, 『물'고기네 나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네 발 가진 메' 짐승들』 경우에는 표지 사진까지 올렸다. 『집게네 네 형제』가 10,000부를 찍었는데 견주어, 『네 발 가진 메' 짐승들』과 『물'고기네 나라』는 낱말로 30,000부씩 찍어 더 무게 있게 다루었다. 백석은 이들 세 시집을 1957년과 1958년에 걸친 열두 달 사이에 활짝 꽃피우듯 내놓았다. 어린이시집 『우리 동무』는 리맥의 독후문으로 확인된다. 『우리 목장』을 낸 뒤 백석이 제거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작품집이 거두어지고,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남은 책이 간수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다. 『아동들에게 주는 작가의 선물-지난 1년간(1957. 6.-1958. 5.) 출판된 아동문학 작품(단행본)』,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8. 6. 5. 리맥, 『아동들의 길'동무가 될 동시집-백석 동시집 『우리 목장』을 읽고』,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2. 2. 27.
- 2) 글쓴이는 2014년부터 재북 시기 백석의 활동을 찾아 알리는 일을 해 오고 있다. 박태일, 『백석이 옮긴 마르샤크의 『동화시집』, 『비평문학』』 52집, 한국비평문학회, 2014, 161-200쪽. 마르샤크(박태일 엮음), 『동화시집』, 도서출판 경진, 2014. 박태일, 『백석의 새 발굽 작품 셋과 사회주의 교양』, 『비평문학』 57집, 한국비평문학회, 2015, 87-117쪽. 박태일, 『백석의 어린이 시론 『아동문학』 연간평』, 『현대문학이론연구』 6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191-223쪽. 박태일, 『1956년의 백석, 그리고 새 작품 네 마리』, 『근대서지』 12집, 근대서지학회, 2015, 868-888쪽. 박태일, 『삼수 시기 백석의 새 평론과 언어 지향』, 『비평문학』 62집, 한국비평문학회, 2016, 133-167쪽. 박태일, 『백석의 번역론 『번역소설과 우리말』』, 『근대서지』 15집, 근대서지학회, 2017, 250-275쪽. 박태일, 『백석과 중국공산당』, 『근대서지』 18집, 근대서지학회, 2018, 251-279쪽.

련한 이해와 정보⁴⁾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첫째, 백석의 것이 아닌 작품까지 그의 번역인 양 다루어진 경우다. 그것을 가려 번역자 귀속을 바로하고 엄밀히 고증할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둘째, 가명(필명·이명) 확정 문제다. 백석은 초기 번역 활동에서부터 여러 이름을 쓰면서 번역물을 내놓았다고 알려진다. 그의 번역에 관

-
- 3) 우리 쪽에서 되낸 백석 번역 작품집은 아래와 같다. 솔로호프(송준 위음),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다』, 청문각, 1998. 게 그리쉬 · 아 노르멜(송준 위음), 『나무 잎새는 떨어진다』, 청문각, 1998. 정선태 위음, 『백석 번역시 선집』, 소명출판, 2012. 송준 위음, 『백석 번역시 전집』(1), 횡당나귀, 2013. 토머스 하디(방민호 외 위음), 『테스』, 서정시학, 2013. 미하일 솔로호프(윤혜연 외 위음), 『고요한 돈』(1), 서정시학, 2013. 미하일 솔로호프(윤혜연 외 위음), 『고요한 돈』(2), 서정시학, 2013. 마르샤크(박태일 위음), 『동화시집』, 도서출판 경진, 2014. 엔아 쿤(라리사와 위음), 『희랍 신화집』, 서정시학, 2016.
- 4) 백석 번역 문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글은 손에 꼽힐 수준이다. 몇몇 개별 작품에 관한 소개나 번역 특성을 가볍게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 본격적인 백석 번역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번역 전반에 관한 1차 문헌 갈무리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당연한 현실이다. 중요성과를 들면 아래와 같다. 김병철, 『한국근대 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98. 박혜숙, 『백석의 번역시집 『이싸뽀쓰끼 시초』』, 『시문학』 5월호·6월호, 시문학사, 1999, 125-132쪽·119-127쪽. 정선태, 『백석의 번역시』, 『근대서지』 2호, 근대서지학회, 2010, 337-363쪽. 이상숙, 『백석 번역시 연구를 위한 시론 - 북한 문학 속의 백석 III-』, 『비평문학』 46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33-64쪽. 배대화, 『백석의 푸시킨 번역시 연구』, 『슬라브연구』 28권 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2, 53-99쪽. 이상숙, 『백석의 번역 작품 「사랑」, 「슴바꼭질」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7호, 한국근대문학회, 2013, 99-154쪽. 박태일, 『백석이 옮긴 마르샤크의 『동화시집』』, 『앞에서 든 글』, 161-200쪽. 이경수, 『마르샤크의 『동화시집』 번역을 통해 본 『집게네 네 형제』 창작의 의미』, 『비교한국학』 23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179-211쪽. 배대화, 『백석의 『고요한 돈』 번역 연구』, 『슬라브연구』 31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5, 91-128쪽. 백석 번역 작품을 두고서는 송준이 평전 안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올렸다. 송준, 『시인 백석』(3), 횡당나귀, 2012. 백석의 것을 포함하는 북한 번역론에 관한 1차문헌 소개는 아래 글에서 이루어졌다. 박태일, 『백석의 번역론 「번역소설과 우리말」』, 『앞에서 든 글』, 250-275쪽. 박태일, 『북한 초기 번역론 실증』(1), 『한국지역문학연구』 제10집, 한국지역문학회, 2017, 82-120쪽. 박태일, 『북한 초기 번역론 실증』(2), 『한국지역문학연구』 제12집, 한국지역문학회, 2018, 76-104쪽.

런해 가장 많은 정보를 내놓은 송준이 든 가명만도 리세희·박일파(일파)를 비롯해 여섯이다. 그와 달리 정선태는 리세희·박일파는 백석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⁵⁾ 백석의 가명 확정은 재북 시기 번역 문학의 전모를 갈무리하기 위한 가늠쇠로 남아 있는 셈이다. 셋째, 아직 알려지지 않은 번역 작품 발굴이다. 백석은 1960년대 초기까지 북한 문학사회에서 가장 많은 번역물을 내놓은 이라 할 수 있다. 확인 매체를 늘이면 새 작품을 적지 않게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백석의 번역론을 향한 관심이다. 다른 번역가와 나뉘는 그의 번역 태도와 특성 구명은 북한 번역 문학뿐 아니라 백석 문학 이해에서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걸음마 단계다. 게다가 그 일은 번역 활동에 관한 실증적 확정과 이해 없이는 이루기 힘들다. 먼저 든 세 가지 문제점의 선결을 향한 요구는 충분하고도 넘친다.

따라서 이 글은 백석 문학의 핵심이자, 재북 시기 가장 활발한 자리였던 번역 문학을 대상으로 오늘날까지 알려진 정보를 실증적으로 점검, 잘못과 모자람은 바로 잡고 깊고자 하는 목표로 이루어진다. 백석 번역 문학의 전모 재구성을 향한 밑자리를 닦는 일이다. 뜻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 논의는 셋으로 갈랐다. 첫째, 기존에 알려진 백석의 번역 작품에 대한 실증적 확정이다. 둘째, 백석이 썼다고 알려진 여러 가명의 정부당성을 따지고 확정한다.⁶⁾ 셋째, 새 발굴 작품을 보고하고 조감한다. 이러한 논의를 빌려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론뿐 아니라, 북한 번역 문학론이라는 새 담론 지평까지 겨냥할 수 있을 것이다.

5) 2장 '가명 논의의 검증과 확정'에서 다룰 것이다.

6) 이 글은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 문학 연구」라는 논제로 이루어진 결과물 2편 가운데 앞의 것이다. 가명 검증 과정에서 새로 찾은 이름과 관련한 논의는 분량이 넘쳐 이어질 「리식이 백석이다」로 미룬다.

2. 작품의 실증적 잘못 바꾸기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 문학을 두고 따져 드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그의 활동이 북한 초기 여느 번역가보다 오래도록 이루어졌고, 결과물이 우리가 손닿기 힘든 곳에 흩어져 있는 까닭이다. 띄엄띄엄 알려져 온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 문학을 두고 처음으로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정선태다. 일부 낱책에 실린 번역시 소개에 머물렀지만, 그의 글은 백석 번역 문학의 이해 지평을 여는 데 물꼬를 텃다. 그는 6중에 걸쳐 167편⁷⁾에 이르는 번역시를 고르고 짧은 풀이를 붙였다. 이어 낱책⁸⁾으로 묶었다. 다만 『뿌슈긴 선집』(1)에서 리세희나 박일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번역은 백석의 것으로 보지 않았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둘이 백석의 가명이라 확정된다면 백석 작품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어 백석의 번역 작품 수를 부쩍 늘인 이가 송준이다. 일찍부터 백석에 관해 남다른 애정을 기울인 사람답게 가장 많은 작품을 들었다. 문헌지를 꼼꼼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평전 『시인 백석』(3)(2012) 곳곳에서 백석이 옮긴 낱책과 낱글을 들어가며 줄거리를 엮었다. 연속간행물에 실은 낱글만 54회 게재에 71편에 걸쳤다. 『조소문화』·『문학신문』·『아동문학』과 같은 매체를 공을 들여 챙겨 본 노력을 짐작하게 하는 결과다. 백석 번역의 바탕이 드러난 격이다. 그들 가운데서 글쓴이가 실물 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이 6편⁹⁾이다. 거기다 번역 아닌 정론을

7) 『뿌슈긴 선집』(1)(1955), 『이싸콥스끼 시초』(1954), 『레르몬토프 시선집』(1956), 『나 짐 히크메트 시선집』(1956), 『니콜라이 찰호노브 시선집』(1957), 『굴리아 시집』(1957). 정선태, 『백석의 번역시』, 『근대서지』 제2호, 근대서지학회, 2010, 337-363쪽.

8) 정선태 엮음, 『백석 번역시 선집』, 소명출판, 2012.

9) 『청년생활』 창간호의 『학생일기에서』(1948), 『조소문화』의 『노르웨이의 벼랑에서』(1948)와 『동해에서』(1955), 『아동문학』의 『두 이웃 사람』(1957), 『문학신문』의 『노동계급의 주체』(1957) 5편은 실물 확인을 하지 못했다. 『조선여성』 8월호의 『고백』(1957)은 해당 호에 실려 있지 않은 작품이라 빠진다. 익명의 단문 『아침쟁이』

번역으로 잡았다. 『아세아 아프리카는 하나이다』(1957)다.¹⁰⁾ 그들 7편을 빼고 나면 47회 64편이 남는다. 이들을 살피노라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잘못이 보인다.

첫째, 작품 제목이나 실린 매체를 잘못 적거나 중복 게재한 경우다. 『아동문학론 초』(1954)를 『고리끼 문학론』이라 한 경우¹¹⁾가 하나다. 『조소 문화』에 실은 『마을의 가을』(1956)은 『조선문학』으로 적었다.¹²⁾ 『문학예술』 1954년 4월과 5월에 ‘평화옹호세계시인집’이라 실었다는¹³⁾ 번역시들의 부제는 ‘세계평화옹호시초’다. 게다가 이것은 한 해 앞서 1953년에 실렸다. 거기 올린 11편은 두 해 앞서 냈던 시집 『평화의 깃발』에서 11편을 가려 뽑아 되실은 것이라 썼다. 실물 확인이 필요한 일이다.¹⁴⁾ 중복 게재한 경우는 둘이다. 『레닌과 난로공』은 1956년 『조선문학』 4월호¹⁵⁾와 1957년 1월호 『조선문학』¹⁶⁾으로 두 번 올렸다. 1956년 4월호가 빠르다. 『시적 화상의 예술』도 『문학신문』 1957년 7월¹⁷⁾과 1958년 11

(1954)는 백석의 번역 흔적이 보이는 작품으로 송준이 들었으나, 이 글에서는 빼다. 송준, 『시인 백석』(3), 현당나귀, 2012, 196쪽, 197쪽, 277쪽, 323쪽, 409쪽, 273쪽.

10) 송준(2012), 위의 책, 403쪽.

11) 위의 책, 261쪽.

12) 위의 책, 308쪽.

13) 위의 책, 362-363쪽.

14) 송준은 『평화의 깃발』을 실물로 본 것 같지 않다. 『문학예술』에 두 차례 ‘세계평화옹호시초’로 올린 작품을 두고 ‘평화옹호세계시인집’이라 적은 데서 빌미를 남겼다. 그는 백석이 『평화의 깃발』에 실었던 28편 가운데서 11편을 가려 뽑아 『문학예술』에 올렸다고 썼다. 세 해 앞선 1950년 이미 낱책에 실었던 작품을 다시 1952년 잡지에 올린 셈이다. 격화하고 있었던 전쟁기 세계 외교전, 사상전 현실로 보아 가능성이 없다. 전쟁기 미국이 이끌었던 UN의 안전보장이사회에 맞서 공산주의권의 ‘세계평화리사회’가 벌였던 ‘평화’ 공세와 그에 맞물린 작품 생산의 대결 구도가 그 점을 보증한다. 글쓴이도 『평화의 깃발』을 실물로 보지 못하고 『문학예술』 7호(1950) 앞표지 안쪽 광고로 확인했다.

15) 송준(2012), 앞의 책, 294쪽.

16) 위의 책, 323쪽.

17) 위의 책, 367쪽.

월¹⁸⁾에 실었다고 거듭 썼다.¹⁹⁾ 1957년 7월 18일자로 바로 잡을 일이다.

둘째, 실린 해달날(년월일)을 잘못 적은 경우다. 5군데를 짚을 수 있다. 「동방의 형제들」(1958)²⁰⁾은 『문학신문』 1958년 1월 1일이 아니라 2일자에 실렸다. 「아이들은 말한다」²¹⁾는 해를 건너 1958년 5월 29일자에 실렸다. 「조국 강토」는 『조소문화』 1957년 1호에 실렸는데 1956년이라 적었다.²²⁾ 시 「풍경」, 「붉은 광장」, 「봄 소나기」는 『문학신문』에 1957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²³⁾된 것이라 썼다. 그런데 「풍경」과 「붉은 광장에서」는 1958년 5월 8일자에 나란히, 그리고 「봄 소나기」는 1958년 4월 10일자에 실렸다. 이런 잘못과 느슨함은 모두 바로 잡혀야 한다.

셋째, 옮긴이에 잘못이 있는 경우다. 『조소문화』 1월호에 실린 단편 「주부」(1955)는 백석 번역이 아니다.²⁴⁾ ‘석가산’이라는 이름으로 실렸다. ‘석가산’은 송준이 백석의 가명이라 내세웠던 적도 없는, 낯선 이름이다. 옮긴이가 익명임에도 백석의 것으로 잡은 경우도 있다. 「시적 화상의 예술」(1957)과 「시문학은 인민의 정신」(1958)이다.²⁵⁾ 이 둘이 백석의 번역이라면 터무니(근거)를 밝혀야 했다. 그렇지 않았으니 백석의 번역 작품에서는 빼야 한다. 그리하면 송준이 확인한 연속간행물에 실린 백석의 번역 낱글은 모두 44회 61편²⁶⁾이 남는다.

18) 위의 책, 413쪽.

19) 작품 수를 셀 때는 한 번 게재로 잡았다.

20) 송준(2012), 앞의 책, 409쪽.

21) 위의 책, 402쪽.

22) 위의 책, 323쪽.

23) 위의 책, 402-403쪽.

24) 위의 책, 274쪽.

25) 위의 책, 413쪽. 익명으로 올렸으나 송준이 백석의 것으로 잡은 작품에 들어 더 있다. ‘마르샤크 탄생 70주년을 맞아’ 『아동문학』에서 마련한 자리에 실린 마르샤크의 동화시 「왜 고양이를 고양이라 이름 지었나」와 어린이시 「어린이의 날」이다. 이 둘은 백석이 쓴 「마르샤크의 생애와 문학」를 앞세워 백석 기명으로 「새끼범」을 실은 뒤에, 함께 올린 작품이다. 이 둘은 백석이 옮겼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아동문학』 11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69-73쪽

26) 연속간행물에 실린 낱글의 경우, 송준은 제목은 죄 밝혔으나 글쓴이와 년곳, 낸

날책 경우는 송준이 『시인 백석』(3) 출판과 함께 언론에 돌린 「백석의 단행본 목록」에 올라 있다. 그런데 『시인 백석』(3)에는 이름이 들었으나 ‘목록’에는 없는 것이 둘이다. 나뉘어 히끄메트의 「남성의 부끄러움에 대한 사념」(1956)²⁷⁾과 「레닌과 난로공」을 되살은 역시집 『레닌』(1957)²⁸⁾이다. 이 가운데 앞은 실물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이 글 끝에 붙인 ‘재북 시기 백석 번역 문학 죽보기’에서는 뺐다. 송준은 ‘목록’에다 44번까지 번호를 달아 놓았다. 하지만 『굴리아 시집』, 『희랍 신화집』, 『불타는 시절의 이야기』는 두 번 이름을 올렸다. 거기다 『압록강』(1943)은 백석에게 준 헌시가 실린 시집일 따름이다. 재북 시기 것이 아닌 『테스』에다 광복기 재판본인 공역 『세계걸작동화집』(1946)까지 빠져야 한다. 그리하면 백석의 재북 시기 것이라 할 수 있을 날책은 38권²⁹⁾이 남는다.

해달날은 온전하게 다 적지 않고 넣고 빼면서 들쭉날쭉 경우를 달리했다. 이 자리에서는 작품의 제목만 보인다. 「자랑」, 「전선으로 보내는 선물」, 「아동문학론 초」, 「세계평화옹호시초」(1), 「세계평화옹호시초」(2), 「먼데로부터 돌아와」, 「농촌 소비에트에 나뭇기는 깃발」, 「조국 찬송」, 「전야는 노래 속에」, 「젓나무」, 「레닌과 난로공」, 「아무다리야 강 우의 젤스나라드」, 「마을의 가을」, 「깜찍한 여우와 어진 물오리」, 「나는 조선의 정신으로 숨쉬리라」, 「굴복하지 않으리라」, 「조국강토」, 「표장」, 「빼국새」, 「어부들」·「직포공」, 「나는 말한다」, 「쓰팔린그라드 아이들」, 「조선에 여름이 온다」, 「말은 하나다」, 「기차 안에서」, 「『황혼』의 사상성」, 「숨바꼭질」, 「아브로라」·「레닌」·「동지에게」(굴리아 시집에서), 「해를 만나다」, 「10월」, 「왜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이름 지었나」·「어린이의 날」·「새끼뱀」, 「1914년 8월의 레닌」, 「아이들은 말한다」, 「풍경」·「붉은 광장에서」, 「봄 소나기」, 「오솔길」, 「동방의 형제들」, 「창작의 자유를 논함」, 「생활의 시적 탐구」, 「내 바라옵기는…」·「어머니의 손」·「등산」, 「카나리아와 고양이」, 「국제반동의 도전적인 출격」, 「서사시」, 「예술영화의 씨나리오와 언어」. 송준, 『시인 백석』(3) 참조.

27) 송준(2012), 위의 책, 300-301쪽.

28) 위의 책, 388쪽.

29) 38권의 제목만 적으면 아래와 같다. 『낮과 밤』,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다』, 『청년근위대』(상권), 『뿌쉬긴 시집』, 『청년근위대』(하권), 『이싸폼스끼 시초』, 『고요한 돈』(제1권), 『고요한 돈』(제2권), 『평화의 깃발』, 『행복』, 『쏘련시인선집』(상), 『학교와 가정에서의 위짜말레예브』, 『이싸폼스끼 시초』, 『체호브 선집』(제1권), 『체호브 선집』(제2권), 『뿌쉬긴 시초』, 『와셀리 쪼르긴』, 『쏘련시인선집』(2), 『뿌쉬긴 선집』(1), 『동화시집』, 『쏘련시인선집』(3), 『아동과 문학』, 『사형 당

송준은 낱책을 적을 때 제목을 앞세운 뒤 출판사와 나온 해달날을 다 적거나, 출판사를 비우거나, 낱날을 빼거나 하는 방식으로 들쭉날쭉 올렸다. 실물 확인 정도와 관련되어 나타난 차이일 수가 있다. 『청년근위대』(상권)는 출판사와 낱 해달일을 모두 적지 않았으나 글쓴이가 실물로 확인했다. 낱곳에다 낱날까지 온전히 적지 않은 것³⁰⁾ 가운데서 『뿌쉬긴 시집』(1949), 『이싸뽑쓰끼 시초』(1949), 『청년 근위대』(하권)(1949), 『사형당한 불란서 공산당원들의 편지』(1955)는 실물 확인이 어렵다. 다행히 『뿌쉬긴 시집』은 ‘신간 소개’로 확인된다.³¹⁾ 송준도 실물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³²⁾ 『이싸뽑쓰끼 시초』와 『청년 근위대』(하권)도 송준이 실물로 확인한 듯이 적고 있으나 미심쩍다.³³⁾ 이 둘과 달리 『사형당

한 불란서 공산당원들의 편지』, 『참나무골 타령』, 『레르몽도브 시선집』, 『쏘련문학평론집』, 『로신선집』, 『해 잘나는 날』, 『나짐 히크메트 시선집』, 『서정시』, 『나무 잎새는 떨어진다』, 『말하라 에르메니아여』, 『니콜라이 지호노브 시선집』, 『끄림의 지하에서』, 『굴리아 시집』, 『불타는 시절의 이야기』, 『희랍신화집』, 『울리 지미르 루프스꼬이 시선집』, 『백석의 단행본 목록』,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2012. 9. 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5/2012090502736.html?related_all

- 30) 『와쎄리 쫄르긴』(1954) 경우는 표에서 낱곳을 적지 않았으나 실물 확인이 된 책이다.
- 31) 『신간 소개』, 『조쏘친선』 11월호, 조쏘문화협회, 1949.
- 32) 『백석 번역시 전집』(1)의 ‘해설’ 자리에서 백석이 “주도적으로 번역하여 펴낸 『뿌쉬긴 시집』의 서문에” 말했다고 인용한 글은 박소풍이 엮은 연변본 『뿌쉬긴시초』(1954)의 머리글을 그대로 딴 것이다. 『백석 평전』(3) 본문에서는 북한본 『뿌쉬긴 시집』의 이름조차 빠져 있다.
- 33) 『백석 평전』(3)에서 『청년 근위대』(하권)와 『이싸뽑쓰끼 시초』에 관련한 기술은 그들에 앞서 나온 『청년 근위대』(상권)와 뒤에 나온 『고요한 둔』(제1권)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청년 근위대』(하권)는 1949년에 “번역해 발표했다”고 한 줄로 처리했다. 송준이 출판 사실만 다른 기록으로 확인한 결과일 수 있다. 『이싸뽑쓰끼 시초』도 비슷하다. “이 번역집” 곧 『이싸뽑쓰끼 시초』(1949)에서 “백석이 적어놓은 이사콥스끼의 약전의 일부”라 적은 짧은 인용문은 연변본 『이싸뽑쓰끼 시초』(1954)의 『머리말』을 짜깁기한 것이다. 송준(2012), 앞의 책, 224쪽. 게다가 이어 냈던 『백석 번역시 전집』(1) ‘해설’의 『이싸뽑쓰끼 시초』를 다룬 자리에서 “시집의 서문에 실린 백석의 글”이라며 올린 것은 아예 연변

한 불란서 공산당원들의 편지』는 이미 다른 이가 낸 것이라 백석의 번역이 아니라 보인다.³⁴⁾

출판사와 낸 해달일까지 온전히 다 적은 낱책 가운데서 글쓴이가 실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5권이다. 그 가운데 『평화의 깃발』(1950)은 북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³⁵⁾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싸웠다』(1947), 『고요한 돈』(제1부)(1950), 『고요한 돈』(제2부)(1950)은 우리 쪽에서 되내 북한 출판이 확실한 셈이다.³⁶⁾ 그런데 1959년 12월에 나왔다고 적은 『올라지미르 루콥스꼬이 시전집』은 가웃겨려진다. 그 시기는 현지 파견으로 백석이 량강도 삼수로 밀려나 있을 때다. 이 글 끝에 붙인 죽보기에서는 뺐다.

따라서 송준이 ‘목록’에서 낸 해달일과 낸곳을 다 적지 않은 것 가운데서 글쓴이가 확인하지 못한 『이싸뽑쓰끼 시초』, 『청년근위대』(하권)에다 『사형당한 불란서 공산당원들의 편지』, 그리고 출판사와 낸 해달일까지 다 적었으나 미심쩍은 『올라지미르 루콥스꼬이 시전집』까지 4권을 제쳐

본을 고스란히 옮겼다. 송준 위음, 『백석 번역시 전집』(1), 횡단나귀, 2013, 830-831쪽. ‘편집자 출판자가 연변교육출판사인 이 시집이 백석이 냈다는 북한본 『이싸뽑쓰끼 시초』에 기대어 엮었다 하더라도 미심쩍다. 물론 연길에서 나온 『이싸뽑쓰끼 시초』(1954)를 송준은 자신의 ‘목록’에 올렸다. 북한본을 실물로 보기 앞까지 『이싸뽑쓰끼 시초』의 출판을 확정하기 힘들다.

34) 이 책과 관련해 북한에서 나온 것은 둘이다. 리휘창 옮김 『사형당한 불란서 공산당원들의 서한집』(1949)과 김영길 옮김 『사형당한 불란서 공산당원들의 수기』(1956)가 그것이다. 백석이 『사형당한 불란서 공산당원들의 편지』(1955)를 옮겨 냈다면, 리휘창의 것과 같거나 비슷한 것이겠다. 이미 남이 옮겨 낸 번역물을 여섯 해 뒤에 백석이 다시 옮겨 낸 격이다. 이렇듯 남을 뒤따르는 중복 번역은 백석의 사람됨으로 보아 일어나기 힘들다. 백석이 먼저 옮긴 것을 다른 사람이 따르는 경우는 있었다. 파제예브(조맹연 옮김), 『청년 근위대』(제1부)·(제2부), 민주청년사, 1954. 미하일 솔로호브(변문식 옮김), 『고요한 돈』(1)·(2), 조쑤출판사, 1956·1958. 보리스 고르바토프(정국록 옮김), 『정복되지 않는 사람들』, 국립도서출판사, 1953. 따라서 『사형당한 불란서 공산당원들의 편지』는 실물 확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백석의 번역물로 잡기 어렵다.

35) 『문학예술』 7호(1950) 앞표지 안쪽 광고.

36) 각주 3) 참조.

두고 ‘목록’에 이름을 올린 38권 가운데서 34권은 실물 확인을 마쳤다. 그런데 이들을 놓고 볼 때도 당장 바로잡을 것이 보인다. 『낮과 밤』(1947)을 낸 곳은 ‘조소문화출판사’가 아니다. ‘로동신문사’로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서라도 이 ‘목록’이 지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백석의 것이 아닌 번역을 올린 경우다. 『로신선집』이 먼저다. 본디 『로신선집』(1)(1956)은 백석과 양운한이 옮겼다. 『로신선집』(2)(1957)은 안효상이 옮기고 양운한이 편집을 맡았다. 『로신선집』(3)(1957)은 박홍병·안효상·박시준·배호가 옮겼다.³⁷⁾ 송준이 백석 번역이라 적은 『로신선집』은 ‘백석’이 공역자로 참여한 『로신선집』(1)을 뜻한다. 백석을 백석의 가명으로 본 결과다. 뒤의 가명 검토에서 말하겠지만 백석은 백석의 가명이 아니다. 송준은 오상요·백서호가 옮긴 장편소설 『끄림의 지하에서』(1957)도 백석 번역으로 보아 ‘목록’에 넣었다. 백서호가 옮긴 『불타는 시절의 이야기』(1958)도 올라 있다. 백서호는 가명 검토에서 따지겠지만, 백석의 가명이 아니다. ‘목록’에서 백서호가 번역한 둘은 빠져야 한다.

둘째, 스스로 백석의 가명이라 말했던 ‘박일파’, ‘리세희’와 같은 이의 번역물을 빼 일이다. 이 두 이름으로 이루어진 번역물은 양에서 상당하다. 게다가 그들이 백석의 번역물이라면 백석의 번역 태도나 됴됨이를 구명하는 데 중요한 몫을 맡을 수 있다. 따라서 박일파와 리세희는 물론, 자신이 백석의 가명이라 말했던 이들의 작품을 정작 ‘목록’에서 빼 일은 무책임하다. 물론 『시인 백석』(3)이 학문 공동체 안에서 읽힐 일을 마음에 둔 엄밀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붙일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떤 회로건 공론장으로 내놓은 결과물로서는 잘못이다.

셋째, 독역인가 공역인가를 나누지 않아 더 꼼꼼한 정보가 막힌 경우다. ‘목록’에서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 문학 죽보기’에 온전하게 넣을 수

37) 4권·5권도 낼 예정이라 했으나 그 둘은 확인되지 않는다.

있는 날책은 31권이다. 그 가운데서 백석 독역은 15권이다.³⁸⁾ 나머지 16권³⁹⁾은 백석 번역의 무게가 더하건 덜하건 공역이다. 그런 점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밝혀야 했다.

넷째, 백석의 번역물 가운데서 중국 연변 겨레 자치주 연길에서 나온 책을 다 다루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들은 ‘목록’에 올렸다. 『이싸뽑쓰키 시초』(1954)와 『뿌쉬긴 시초』(1954)다. 앞의 것은 북한에서 났다는 『이싸뽑쓰키 시초』(1949)와는 다른 책이다. 번인본이라는 표시가 없이 ‘편집자’ ‘출판자’로 연변교육출판사를 올린 까닭이다. 『뿌쉬긴 시초』(1954) 또한 연길 작가 박소풍이 ‘번역자’로 이름을 올린 책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낸 책을 그대로 복제해 내는 출판물인 번인본이 연길에는 적지 않다. 그 가운데서 백석의 것도 있으나, ‘목록’에서는 다 빠졌다. 연길 출판물을 ‘목록’에 올렸으니 번인본⁴⁰⁾까지 다루어야 했다.

송준에 이어 재북 시기 번역 문학물을 표로 보인 이가 이상숙이다. 앞선 정선태나 송준의 조사를 이어 받아 그것을 「표 1」 ‘백석 번역시 목록’과 「표 2」 ‘백석 번역 소설, 동화, 산문’으로 나누어 날책 17권, 날글 16편을 올렸다. 날글만 하더라도 송준은 44회 61편을 들었는데 크게 줄었다. 본인이 확인한 것으로 최소화한 결과겠다.⁴¹⁾ 다만 이상숙에서는 「손자

38) 『낮과 밤』,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싸웠다』, 『청년근위대』(상권), 『고요한 돈』(제1권), 『고요한 돈』(제2권), 『평화의 깃발』, 『행복』, 『학교와 가정에서의 위짜 말레예브』, 『동화시집』, 『굴리아 시집』, 『해 잘나는 날』, 『참나무폴타령』, 『희랍 신화집』, 『말하라, 아르메니아여』, 『나무 잎새는 떨어진다』.

39) 『뿌쉬긴 시집』, 『뿌쉬긴 선집』(1), 『체호브 선집』(제1권), 『체호브 선집』(제2권), 『이싸뽑쓰키 시초』, 『뿌쉬긴 시초』, 『쏘련시인선집』(상), 『쏘련시인선집』(2), 『쏘련시인선집』(3), 『와썰리 쵸르킨』, 『레르몬또브 시선집』, 『아동과 문학』, 『쏘련 문학평론집』, 『니짐 히크메트 시선집』, 『니폴라이 쵸호노브 시선집』, 『서정시』.

40) 박태일, 『북한문학 연구와 중국 번인본』, 『외국문학연구』 57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145-172쪽.

41) 송준의 『시인 백석』(3)이 2012년 9월에 나왔고, 이상숙의 논문이 12월에 나왔다. 투고 논문의 심사 기간을 생각한다면 이상숙의 글은 송준의 결과물을 보지 않은 채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숙, 『백석 번역시 연구를 위한 시론-북한 문학 속의 백석 III-』, 『비평문학』 46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33-64쪽.

와의 이야기』(1957) 1편을 새로 찾았다. 『로동계급의 주체』(1958)는 나온 날짜를 더했다. 『고리끼 문학론』(1954)이라 잘못 적힌 제목은 『아동 문학론 초』로 바로 잡았다. 그러면서 『10월』(1957)이 실린 달은 오히려 9월로 잘못 적었다. 송준이 『시인 백석』(3)에서 보인 잘못을 따른 자리도 있다. ‘세계평화옹호시초’ 처리가 그것이다.⁴²⁾

송준은 『시인 백석』(3)을 낸 녀 달 뒤 『백석 번역시 전집』(1)(2013)을 냈다. 거기서 정선태의 『백석 번역시 선집』(2012)에서 나아가 『이싸쑤스끼 시초』를 비롯해 『뿌쉬낀 시집』, 『쏘련시인선집』에 실린 백석의 번역시를 거쳐 『와썰리 쫘르낀』까지 넣었다. 그밖에 『조쏘문화』와 『문학예술』에 실린 것을 몇 편 더했다. 그리고 ‘번역 작품 연보와 수록 작품 목록’⁴³⁾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그의 책과 ‘목록’에서는 다시 문제가 보인다.

첫째, 제3부 ‘뿌쉬낀 시집’과 제7부 ‘뿌쑤낀 선집’에 실은 작품의 실질 여부다. 먼저 3부에 실린 뿌쉬낀의 작품들은 연변에서 박소풍이 엮어 낸 『뿌쉬낀 시초』(1954)의 것을 거의 그대로 올렸다. 『백석 번역시 전집』(1) 제3부 ‘뿌쉬낀 시집’의 처음 두 작품, 곧 『황제마을에서의 회상』과 『장미』는 『뿌쉬낀 시초』에서 박소풍이 번역한 것으로 맨 앞에 실려 있다. 이 두 편을 제외하면 『뿌쉬낀 시초』에 실린 탄계, 임하, 일파, 백석 네 이름으로 된 작품이 모두 실렸다. 빠진 것은 정률, 홍종린, 전동혁, 김상오와 일부 박소풍의 것이다. 북한의 『뿌쉬낀 시집』(1949)에서 연변의 박소풍이 작품을 골라 『뿌쉬낀 시초』(1954)에 올렸다 하더라도 맞춤법 차이와 같은 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백석 번역시 전집』(1)에 백석의 가명으로 발표된 작품을 실지 않겠다는 자신의 편찬 원칙이 무너

42) 각주 14)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평화옹호세계시인집’이라 적은 ‘세계평화옹호시초’가 『문학예술』에 실린 해는 1954년이 아니고 1953년이다. 게다가 『문학예술』의 번역시 11편은 익명이다. 송준이 시집 『평화의 깃발』(1950)에서 다시 뽑아 올린 작품이라 했으나, 시집을 실물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백석의 것이라 할 터무니가 없다. 그런데 번역 작품 안쪽의 말씨를 따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다음 글 『리식이 백석이다』에서 그 점을 다룰 것이다.

43) 송준 엮음(2013), 앞의 책, 796-802쪽.

진 것은 두고서라도, 북한본 『뿌쉬긴 시집』의 실재를 확인하지 못해 연변본 『뿌쉬긴 시초』에서 따올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게다가 제7부 ‘뿌슈긴 시집’에 올린 작품은 백석 번역이라는 뚜렷한 터무니가 없다. ‘뿌슈긴 시집’을 엮은 바탕인 『뿌슈긴 선집』(1)은 해당 작품 하나하나를 두고 번역자를 밝히지 않는 방식을 취했다. 책 끝에 한꺼번에 공역자로서 백석, 리세희, 박일파는 물론, 박재성, 박영근, 서만일과 같은 번역가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어느 작품이 누구의 번역인지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뿌슈긴 선집』(1)에서 50편에 걸친 작품을 백석의 것이라 당당히 골라 올렸다.

① 낮설은 이곳에 와서,
 정들은 옛 풍속을 따라,
 명랑한 봄철 명절날에
 작은 새 한 마리를 놓아 주노라.

비록 하나의 목숨에라도
 나는 자유를 베풀었으며,
 내 마음은 아무 데나 걸릴 데 없이
 그저 한 없이 즐거워라!

-1823

- 「작은 새」⁴⁴⁾

② 낮설은 고장에 봄은 와도
 정답다, 옛 버릇은 지쳐,
 즐거운 봄철도 명절날에
 작은 새 한 마리 놓아 보낸다.

내 마음 이제는 즐겁고나,
 비록 하나의 목숨에나마

44) 박소풍 엮음, 『뿌쉬긴 시초』, 연변교육출판사, 1954, 59쪽.

나는 자유를 보내었으니
무엇에라 이 마음 후련 안하랴

- 「작은 새」⁴⁵⁾

앞의 ①이 연변본 『뿌쉬긴 시초』(1954)에 실린 백석 기명의 번역 작품이다. 뒤의 ②가 『뿌쉬긴 선집』(1)(1955)에 실린 익명 번역가의 작품이다. 둘 사이 낸 때는 여덟 달 거리가 있다. 길지 않은 기간이다. 그 사이 송준의 말마따나 백석이 “기존에 나왔던 『뿌쉬긴 시집』의 시들을 다시 번역”하여 “하나하나 다시 정성껏 번역해” “번역이 ‘선택적 창작’이라는” 것을 알게끔 ‘모범’이 될 만한 쪽으로 손질이 된 것⁴⁶⁾인지는 의문스러울 정도로 작품 차이가 크다. 한 번역가가 시일을 두고 더 나은 쪽으로 손질해 올린 작품이라 하기 어렵다. 짧은 본보기지만 『백석 번역시 전집』(1) 7장에 올린 ‘뿌쉬긴 선집’의 수록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둘째, 장편소설 『고요한 돈』에 실린 삽입시를 개별 번역시로 잡아 한 장을 따로 묶어 실은 일이다. 이치에 닿지 않는다. 비록 가락글 풀이나 삽입시는 해당 작품에 끼어 든 작은 부분이다. 또한 백석이 옮긴 작품에서 삽입시는 『고요한 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참나무골 타령』에도 들었다. 개별 번역 평론 속에도 번역시가 들앴은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의 잣대에 따르자면 그들까지 다 넣어야 한다.

셋째, 최창섭과 함께 옮겼던 『와썹리 조르긴』을 실은 점이다. 이 작품 집 또한 백석과 최창섭의 역할 분담이 드러나 있지 않는, 이름 그대로

45) 뿌쉬긴, 『뿌쉬긴 선집』(1), 조쏘출판사, 1955, 199쪽.

46) 송준 스스로 『뿌쉬긴 선집』에서 “제목도 바뀌었고 시집의 내용도 상당히 바뀌”어 “엄밀한 의미에서 각각 다른 번역시인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1949년 판본과 1955년 판본을 통해서 번역은 고도의 문학적 행위인 ‘선택적 창작’이라는 것을” 백석이 알려주고 있어 “2개의 번역본”을 모두 백석의 것으로 보아 ‘전집’에 실었다 한다. 스스로 자신의 “백석 번역시 전집 출간의 가장 큰 의의”가 “1949년 8월에 나온 『뿌쉬긴 시집』의 발굴’이라 해놓고 그것이 실제로는 연변본 『뿌쉬긴 시초』의 것에 따랐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송준 엮음(2013), 앞의 책, 12-14쪽, 862-863쪽.

공역 ‘장편서사시’집이다. 수록 우선순위에서 뒤로 한참 밀려나야 할 작품이다.⁴⁷⁾

넷째, 본인이 백석의 가명이라 밝혔던 이름으로 발표된 작품을 한결같이 신지 않았다. 가명을 쓴 작품 경우에 원 작품의 수준이 높지 않거나 백석의 기명이 없는 까닭이라 밝혔다.⁴⁸⁾ 자의적인 풀이다. 가명으로 발표한 번역 수록 여부는 가명 획정과 관련하여, 백석의 작품 수를 뿌리에서부터 다르게 만드는 변수다. 다만 『백석 번역시 전집』(1)에서는 가명 작품을 신지 않았으니 출판에는 문제가 없었던 셈이다.

앞에서, 이제까지 알려진 백석의 번역 작품을 두고 실증적인 점검을 마쳤다. 정선태가 물꼬를 튼 뒤 송준에 의해 큰 바탕이 밝혀진 줄거리 안에서 이상숙과 같은 이가 뒤를 따를 자리다. 거기에서 뺄 것은 빼고, 고치고 손질할 자리는 가다듬을 일이다. 그리하여 기존에 알려진 가운데서 실재를 확정할 수 있는 백석의 번역물은 날책 32종 32권⁴⁹⁾과 연속간행물에 실은 낱글 43회 게재 51편⁵⁰⁾이다. 그런데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 활동에 관련해서는 가명과 맞물려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다. 가명으로 알려진 것들의 정부당 여부에 따라 작품 양에서 큰 변동이 있을 것이 뻔

47) 아울러 장편서사시의 나뉜 한 장 한 장을 따로 떼어 놓아 개별 작품으로 읽히도록 실었다. 연속성을 헤치면서 작품 편수만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셈이다.

48) “본 책에서는 백석의 기명이 없다는 이유로 또한 서정성이 약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수록하지 않았다.” “『쏘련시인선집』 중편 즉 제2권”에서 백석은 “자신의 공식 필명인 이름 백석 이외에 김춘원이라는 이름까지 사용하였으나 본책에서는 수록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쏘련시인선집』 중편에서) 백석은 여러 이름을 사용하여 많은 작품을 번역하였다. 그러나 본책에서는” “수록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비록 백석이 많은 번역을 했지만 역시 원시의 내용이 좋지 않은 경우는 번역을 해도 좋은 번역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시들은 자신의 기명인 백석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송준 엮음(2013), 『해설』, 앞의 책, 855-857쪽.

49) 『시인 백석』(3)에는 들었으나, ‘목록’에는 빠진 『레닌』까지 더한 숫자다.

50) 이상숙이 찾은 『손자와의 이야기』를 더한 숫자다. 그리고 백석의 번역으로 확정되지 않은 ‘세계평화옹호시조’ 2회 11편을 제쳐 둔 수치다.

한 까닭이다.

3. 가명 논의의 검증과 확정

이 장에서는 중요 현안으로 남아 있는 백석의 가명(필명·이명)⁵¹⁾을 따지고 확정하고자 한다. 백석 번역 문학의 실증적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끄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작가동맹 외국문학분과위원회 맹원 활동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중역, 재번역, 가명, 익명 번역을 향한 질책이 그것이다.

번역 문학의 무책임성을 조성시키는 직접적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는 무기명, 가명, 익명의 번역 작품이 우리 번역 출판물에서 아직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번역 작품들이 무기명 또는 가명, 익명으로 게재되는 것에는 불순한 사람들이 끼여 있어 아주 좋지 않은 번역으로써 훌륭한 원작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지난날의 경험이 말하여 주고 있다.

- 박영근. 『번역 문학의 사상예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운데서⁵²⁾

외국문학분과 위원장 자리를 오래 맡았던 박영근이 1959년 상반기년도 외국문학분과 ‘총화회의’에서 한 보고문 ‘요지’ 가운데 한 곳이다. 번역 사회에 “무기명 또는 가명, 익명” 게재와 같은 “무책임”한 경향이 오래 앞부터 자리잡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북한 초기 번역가의 개별 실존을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하리라는 일깨움을 주는 말이다. 백석이 그런 “무책임”하고 “불순한 사람”에 함께 놓일 입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맹원

51) 북한 초기 문학사회나 지식사회에서 필명, 또는 가명으로 글을 내놓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립화가 양남수를, 박남수가 현수를, 박산운이 강수재를, 류렬이 류수로, 이극로가 이극으로 쓴 것이 작은 본보기다.

52)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9. 8. 18.

의 “무기명, 가명, 익명” 번역 문제는 백석이 떠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박영근의 지적으로 백석의 가명 번역을 뒷받침할 터무니를 얻게 된 셈이다.

현재까지 백석의 가명으로 알려진 것은 여섯, 곧 송준이 말한 리세희·박일파(일파)·백서호·백억·김춘원·한면상이다.⁵³⁾ 백석이 그런 가명을 썼다는 사실을 송준은 주로 중국 동북 지역 연변 겨레 자치주와 백산시 장백 겨레 자치현 문학사회의 ‘풍문’에 기대고 있다. 꼼꼼하게 터무니를 밝히지 않아 막연하다. 그가 더 엄밀한 것을 내놓지 않은 현재로서는⁵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모으고 활용해 가명 논의와 획정에 들어

53) “‘일파’도 이미 연변에서 널리 알려진 백석을 지칭하는 필명 즉 백석의 다른 이름이었다.” “백석의 또 다른 이름은 김춘원이었다. 백석이 김춘원의 이름으로 번역한 작품은 『뿌쉬긴 선집 제1권』이다. “또한 백석의 또 다른 이름은 리세희였다.” “백석은 부인 이윤희의 이름과 비슷한 리세희라는 이름을 해방공간에 사용하였다. 이런 까닭에 중국의 연변에서는 1955년 3월에 나온 『뿌쉬긴 선집』을 실상 백석이 거의 혼자서 번역한 것이라고 엉뚱한 소문이 났었다.” “이는 연변 뿐만 아니라 당시 북한과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장백현에 있는 작가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이런 소문은 연변의 작가들 사이에서는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다. 사실 푸쉬킨의 시를 제대로 번역할 사람은 북한에서는 백석 빼고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백석 번역시 전집』(1)을 엮으면서 3장 ‘뿌쉬긴 시집’에 올린 작품은 『뿌쉬긴 시초』(연변: 1954)에 실려 있는 ‘탄계’, ‘입하’, ‘박소풍’의 것과 같다. 그를 두고 송준은 “그 유명한 1949년 북한 판본인 『뿌쉬긴 시집』은 “장편 서사시를 포함한 34편의 푸쉬킨의 시를 소개했고”, “백석이 이 시집에서 ‘탄계’와 ‘일파’ 그리고 ‘입하’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총 25편 정도를 번역”했다고 썼다. 이렇듯 한 차례 들고 있으나, 『뿌쉬긴 시집』의 원본을 볼 수 없는 현실이라 가명 논의에서 ‘탄계’와 ‘입하’는 제외한다. 뒤에 『백석 번역시 전집』(1)의 문제점을 짚을 때 다룰 것이다. 송준 위음(2013), 『해설』, 앞의 책, 859-861쪽, 832쪽.

54) 각별히 중국 길림성 백산시 장백현과 오늘날 백석의 유족이 살고 있는 북한 혜산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곳이다. 그런 까닭에 송준의 기술에는 북한 안쪽 내부자의 정보와 얽힌 듯함 기미도 엿보인다. 그가 자신의 가명 기술에 관련한 명확한 터무니를 내놓지 않은 까닭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 내부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배려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 꼼꼼한 터무니를 밝히지 않았다 해서 그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낮추어 보는 자세는 마땅치 않은 셈이다.

설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가명 하나하나의 정부당성을 가늠하고, 나아가 알려지지 않은 이름까지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박일파’ 또는 ‘일파’(一波)다. 송준은 백석이 광복기부터 ‘일파’를 써오다 『쏘련시인선집』(1953)에서는 “아예 성을 박 씨로 붙인 박일파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고 썼다. 그리고 일파는 “이미 연변에서 널리 알려진 백석을 지칭하는 필명”⁵⁵⁾이라 했다. “널리 알려진” 속살을 밝히지 않았지만, 확신이 굳다. 그런데 송준의 이 기술에 더할 사실이 있다. 광복기부터 썼다는 ‘박일파’의 실증이다. 그 이름은 1948년 푸쉬킨의 『어부와 금붕어』(『어린이』)⁵⁶⁾ 번역에서 나타난다.⁵⁷⁾ 일파라는 가명의 첫 쓰임은 『어부와 금붕어』임을 알 수 있다.

박일파(일파)가 옮긴 작품은 낱책이 4종 9권, 낱글이 13회 게재 14편이 보인다.⁵⁸⁾ 보리쓰 뿔레보이의 장편소설 『참된 사랑의 이야기』는 1953년도 처음으로 조쏘출판사에서 (1), (2)로 나누어 5000부씩 냈다. 이것은 1954년 모스크바 외국문서적출판사에서 합권하여 재간행했다.

55) 송준 엮음(2013), 앞의 책, 854쪽, 860쪽.

56) 『어린이』 7·8월호, 개벽사, 1948, 8-18쪽.

57) 이어 실기로 되어 있었으나, 한 차례 발표로 그친 글이다. 게다가 박일파 가명이 처음 등장하는 글은 1953년이 아니고, 끝의 죽보기에서 보듯이 1951년 알렉세이 쉼르코브의 번역시다.

58) 『예술에 있어서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맑스-레닌주의 미학』(1952), 『참된 사람의 이야기』(1)(1953), 『참된 사람의 이야기』(2)(1953), 『참된 사람의 이야기』(모스크바: 1954), 『참된 사람의 이야기』(연변: 1954), 『쏘련시인선집(상)』(연변: 1954), 『참된 사람의 이야기』(1955), 『동화집』(1955), 『동화집』(연변: 1956), 『어부와 금붕어』, 『어린이』(1948), 『복수자들의 계명』·『원췌는 내 집에 들어왔다』, 『조쏘친선』 10월호, 1951. 『위대한 로씨야 작가 고골리』, 『문학예술』 3월호, 1952. 『마야코프스끼의 언어와 뿌쉬킨의 전통』, 『문학예술』 6월호, 1952. 『시대의 발걸음』·『미래의 바다에서』, 『조쏘친선』 4월호, 1952. 『쑤베트 작곡가 동맹의 제5차 전원회의 종결』, 『문학예술』 5월호, 1952. 『극적 갈등의 형상화에 대하여』, 『문학예술』 7월호, 1952. 『벗나무 제2부에 대하여』, 『조쏘친선』 8월호, 1952. 『붉은 광장』, 『조쏘친선』 11월호, 1952. 『쑤베트 미술의 거대한 성과』, 『문학예술』 1월호, 1953. 『건설 기사의 가족』, 『조쏘문화』 2호, 1955. 『과분한 영예』(1회), 『조쏘문화』 7호, 1956. 『과분한 영예』(2회), 『조쏘문화』 8호, 1956.

1955년에는 북한에서 그것을 다시 10000부 찍었다. 게다가 같은 해 연변 겨레사회에서 번인본⁵⁹⁾으로 8000권을 찍었다. 한 번역가의 작품집이 짧은 세 해 동안 북한과 소련, 그리고 중국 겨레사회에서 거듭 나오는 드문 본보기다. 그런 만큼 그가 옮긴 『참된 사람의 이야기』는 무거운 대접을 받는 작품이었다.⁶⁰⁾ 『쏘련시인선집』(상)에서는 백석이 6편을, 박일파가 3편을 실었다. 박일파는 그에 그치지 않고 보리쓰 고르바또브의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스크바에서 냈다. 1955년에는 추고브쓰끼의 『동화집』을 냈다. 『동화집』은 백석 기명으로 옮긴 『동화시집』과 마찬가지로 동화시에 낀그림을 넣은 꼴이다. 나오자마자 연변에서 번인본을 찍었다.

박일파의 번역은 광복기에서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문학론·문예이론에서 무게 있는 장편과 동화시로까지 범위가 넓다. 게다가 북한은 물론 소련, 다시 중국에서 세 차례나 번인본을 낼 정도의 비중 있는 작품집을 낸 옮긴이다. 그 시기 북한 번역가 가운데서 그런 범위와 규모로 번역 일을 했던 이는 백석을 빼고 찾을 수 없다. 작품 하나하나 백석과 같이 정평을 얻은 이가 아니면 말기 어려운 것이다.

①“여보세요, 정다운 벗님들이여,/바바바바, 바바바, 바퀴님네들!“//장화들이 삐걱거리고/발굽치가 똑딱거리네./갈파리는 날이 밝도록/기뻐하며 뛰놀 것일세.

- 『파리 아가씨』 가운데서⁶¹⁾

②지금 저 차관이 커피 주전자 뒤를 따르며/절그럭 덜그럭, 쟁강 땡그랑 수선 뻗니다.//다리미들은 씨근거리며/물웅덩이들을 뛰어 건너고,//

59) 박태일, 『북한문학 연구와 중국 번인본』, 『외국문학연구』 제57집, 한국외국어대학 외국문학연구소, 2015, 145-172쪽.

60) 연변교육출판사에서 번인본을 낼 때는 원작에 없는 부분을 책 끝에 붙였다. 그를 두고 원 번역자의 양해를 바란다는 덧말이 있다.

61) 까 추코브쓰끼(박일파 옮김), 『동화집』, 연변인민출판사, 1958, 37쪽.

그 뒤에선 접시들이/웡강 쟁강! 웡강 쟁강!

- 『표도라의 슬픔』 가운데서⁶²⁾

③절름발이 애토끼를/그에게 데려갔어요./의사가 애토끼에게/새 다리를 붙여 주어/다시 꼬마 애토끼는/뛰여다니게 됐어요.

- 『아이블리트 의사』 가운데서⁶³⁾

박일파가 옮긴 『동화집』에서 뽑은 작은 보기다. ①에서 눈여겨 볼 자리는 ‘파리 아가씨’가 하는 말이다. 바퀴벌레를 부르면서 말장난을 멋지게 친다. “바바바바, 바바바, 바퀴”로 이어지는 소리본뜬말(의성어)이 경쾌하다. 가을 파리는 ‘갈파리’라는 신조어로 옮겼다. 이어진 ②에서 ‘차관’이 내는 소리를 “절그럭 덜그럭, 쟁강 땡그랑”으로 옮겼다. ‘접시’들은 “웡강 쟁강” “웡강 쟁강”거린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감각적인 표현이자 기발한 옮김이다. ③에서는 새끼 토끼를 “애토끼”라는 정겨운 말로 바꾸었다. 이런 창의적인 조어력을 보일 수 있는 이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예민하고도 정확한 언어감각을 갖춘, 시인이자 번역가인 백석 말고는 찾기 힘들다. 번역 갈래의 범위와 작품이 지닌 무게뿐 아니라, 번역 맵시를 놓고 볼 때도 박일파는 백석과 고스란히 겹친다.

둘째, 리세희다. 송준은 백석이 아내 “이윤희의 이름과 비슷한 리세희라는 이름을 해방공간에 사용”⁶⁴⁾했다고 썼다. 리세희가 옮긴 작품은 날책 6종 14권, 연속간행물 낱글 1회 게재 1편이 보인다.⁶⁵⁾ 그런데 뜻밖에

62) 위의 책, 48-49쪽.

63) 위의 책, 98쪽.

64) 송준 위음(2013), 『해설』, 앞의 책, 860-862쪽.

65) 박정중·백만기·리세희 옮김, 『서구라파 문학사: 중세 초기편』(1953). 박정중·백만기·리세희 옮김, 『서구라파 문학사: 문예부흥기편』(1953). 『서구라파 문학사: 18세기편-2』(1957), 『서구라파 문학사: 19세기편-2』(1955), 『서구라파 문학사: 20세기편-3』(1958), 『로씨아 문학사』(3)(1957), 『로씨아 문학사』(4)(1958), 『로씨아 문학사』(3)(연번: 1958), 『로씨아 문학사』(4)(연번: 1958), 『현대의 영웅』(1956), 『현대의 영웅』(연번: 1957), 『현대의 영웅』(연번: 1979), 『우르쭈에서 온 소년』(1957). 『새 세대와 낡은 세대』, 『쏘련 단편 소설집』(3), 1955, 179-225쪽.

리세희는 서구와 러시아 문학사 번역에서 우뚝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가 옮긴이로 나섰던 『서구라파 문학사』는 북한에서 유일하고도 가장 큰 규모로 옮겨진 서양 문학사다. 12권이 실물로 확인된다. 『고대 희랍 및 로마 문학사: 로마편』(1950)과 『고대 희랍 및 로마 문학사: 희랍편』(1959)을 처음으로 중세와 문예부흥기 그리고 17, 18, 19세기를 거쳐 20세기까지 다루었다. 이 기획에 리세희는 웨 엠 지르문스끼와 아아 쓰미르노브가 쓴 ‘중세 초기’, ‘문예부흥기’와 웨 웨 이바쇼바가 쓴 ‘18세기 편-2’, ‘19세기 편-2’, ‘20세기 편-3’의 옮긴이로 일했다. 각별히 ‘18세기 편-2’와 ‘19세기 편-2’와 엘게 안드레예브가 쓴 ‘20세기 편-3’은 독역이다. 북한 초기 고등교육 기관의 서구 문학사 학습에 핵심 정전을 마련하는 기획의 중심 번역자로서 리세희의 몫이 뚜렷하다. 이어서 리세희는 러시아 문학사 번역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로씨아 문학사』 4권 가운데서 3권과 4권을 그가 옮겼다.⁶⁶⁾ 러시아 문학사를 통사 체계로 펴내 종합대학, 사범대학과 교원, 학생들에게 교재로 주어진 책이다.⁶⁷⁾ 이 책은 나오자마자 이듬해 연길에서 번인본으로 내 지침서로서 지닌바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 리세희는 이 큼직한 4권 가운데서 2권이나 혼자 옮겼다. 고등교육에 쓸 러시아 문학 이론서를 교수나 러시아 문학 전공자가 아니라 리세희에게 맡긴 것은 그의 번역 솜씨가 그만큼 뛰어났던 까닭이겠다. 리세희는 또한 레르몬토프의 『현대의 영웅』(1956)을 옮겼다. 이 책도 나오자마자 연변에서 번인본으로 되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르쭈프에서 온 소년』(1957)을 옮겼다. 이 책은 ‘초고중 학생용’으로 30000부를 찍었다. “쏘련 공산당과 쏘비에트 국가의 탁월한 활동가며 웨

『늬은이 사트로브』, 『조쑤친선』 10월호, 1949.

66) 1권과 2권은 엔 까 구드지가 썼다. 백만기가 (1)(1957)을 백만기·손승원이 (2)(1957)를 옮겼다.

67) 북한의 제도 교육에서 러시아 문학에 관한 이해는 필수적이었다. 알파한 날책 『현대로씨야문학략사』(교육성 고등교육국, 1951) 정도가 있을 따름인 학습 현실에서 비록 옮긴 풀이나 백석이 함께한 『로씨아 문학사』는 본격 러시아 문학사였다.

이 레닌의 충실한 제자”⁶⁸⁾였던 끼로브의 “소년 및 청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40장에 나누어 담은 전기물이다. 리세희의 번역 활동은 대표적인 해외 문학사 번역에서부터 중요 인물의 전기에까지 걸쳤다. 거기에 소설 『새 세대와 낡은 세대』(1955)이 더한다.

리세희가 옮긴 낱글 가운데 단편 『늙은이 사트로브』(1949)는 『조쏘친선』의 『1949년 총목차집』으로 확인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리세희는 번역이 아닌 ‘신간 소개’를 썼다는 사실이다. 『로동신문』에 실은 『고리끼 작 『아르파모노브 일가의 사업』에 대하여』(1955)⁶⁹⁾가 그것이다. 『아르파모노브 일가의 사업』은 ‘고리끼선집 제1집’으로 나왔다. 옮긴이는 최일룡이다. 그에 관련한 신간평을 리세희가 맡은 것이다. 박일파(일파)로 낸 글은 모두 번역인데, 리세희는 창작물에까지 필력을 보인 셈이다. 딱딱한 신간평임에도 그 안쪽에서는 백석 특유의 말씨를 얼핏 볼 수 있다. 곧 “피로가 빈번히 뽀뜨르를 사로잡군 한다. 그는 자기의 소년 시대와 마을과 고요하고 깨끗한 리찌 강, 그리고 넓은 원경과 농민들의 소박한 생활을 회상한다.”와 같은 말이 한 본보기다. ‘잡군한다’가 아니라 ‘잡군한다’로 쓴 데서 보는 바와 같이 ‘ㄷ’ 소리 우세 현상은 백석의 번역 작품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홀소리 버릇 가운데 하나다. 거기다 딱딱한 단평의 문맥 흐름 가운데서 비감감적인 표현 ‘마을’과 ‘리찌 강’ 사이에 굳이 “고요하고 깨끗한”이라는 반복적 표현을 들어앉혀 문학적 의장을 느끼도록 이끄는 말씨 또한 리세희가 백석과 맞물려 있음을 암시한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리세희는 각별히 서구와 러시아 문학사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들낸 번역가다. 거기다 중요 번역물에 관련한 ‘신간 소개’까지 조선로동당 기관지에 실은 사람이다. 백석과 같은 비중 있는 이가 아니면 말기 힘들다. 백석과 비슷한 북한 초기 번역자 세대는 소설이나 평론, 희곡이나 영화문학, 오체르크(현장문학) 또는 사상, 교육과 같

68) 『우르쥘에서 온 소년』, 국립출판사, 1957, 326-327쪽.

69) 『로동신문』, 1955. 6, 18.

은 여러 갈래와 범위 가운데서 어느 특정한 한 곳에 집중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에 견주어 백석은 번역 범위가 넓다. 자신의 역량을 다채롭게 펼쳤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미 알려진 백석 기명의 번역물에도 리세희의 서구와 러시아 문학사를 더하면 백석 기명의 번역에서 비어 있었던 널찍한 한 자리가 새로 채워진다. 따라서 백석 기명으로 우리 쪽에서 되내서 알려진 『신과 영웅들』(희랍신화집)과 같은 서양 문학사의 고전 번역은 한편으로는 다소 뜬금없어 보이지만 리세희의 두드러진 서구 문학사 번역과 묶어서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번역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리세희를 백석의 가명으로 확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셋째, 백역이다. 그는 북한 초기 중국 문학 번역자로서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다. 『로신선집』(1)(1956)을 비롯해 날책 6종 6권에 날글 1회 게재 1편을 확인할 수 있다.⁷⁰⁾ 전쟁기 전투기 『돌아온 74호기』(1952)를 시작으로 리훈재와 함께 옮긴 단편집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1956)를 거쳐, ‘청년문고’ 『당비』(1957)에서는 「녀 공산당원」을 옮겼다. 주로 소설과 오체르크에 쏘리는 번역 솜씨를 보인 셈이다. 그런데 백역이 백석과 동일인이라면 먼저 백석이 중국 문학 번역과 얽힌 자리를 살펴야 하겠다. 그리 보면 전쟁 발발에 앞서 백석이 중국 소애매의 시 「전선으로 보내는 선물」을 『문학예술』 1호에 실었던 일⁷¹⁾이 한차례 눈에 든다. 그밖에 백석 기명으로 중국 작품을 옮겨 낸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전쟁기 백석은 중국 동북 피란지에 머물면서 후방 활동을 했다. 연길에서 낸 『연변문예』 2호(1951)에 실린 평론⁷²⁾이 그 터무니다. 이 글에서 백석

70) 『로신선집』(1)(1956), 『리가장의 변천』(1956), 『왕효화는 죽지 않았다』(1956),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1956). 완이환, 「05호 공사 설계도」, 『경각성 있는 동무』(1956). 「녀 공산당원」, 『당비』(1957). 「돌아온 74호기」, 『조쏘문화』 10월호, 1952.

71) ‘세계평화옹호’를 위한 사회주의권 시인의 작품들을 묶은 소련어 매체에서 중역한 것이거나 그에 준한 번역이었다고 여겨진다.

72) 『당을 노래하며 당의 위대한 형상을 창조하자-중국공산당의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연변문예』 2집, 연변문련주위회, 1951, 8-10쪽.

은 자신을 연변 겨레 구성원과 같이 중국 공민으로서 내부자 시점을 뚜렷이 했다.⁷³⁾

백석이 번역 초기에 중국 시인의 시를 한차례 옮겼고, 전쟁기 중국 겨레사회에 일시 머물렀다 하더라도 1950년대 주요한 중국 문학 번역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백억과 동일인이라 단정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백억은 중국 문학 번역을 본격적으로 선보였던 이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핵심 번역가라 할 수 있을 리순영과 같은 번역가에는 못 미치나 배호, 양운한과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뒤지지 않는 활동을 했다. 이미 소련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 문학 번역에 한창 성과를 들내고 있었던 백석이였다. 중국 문학 번역에서, 그것도 중국어로서 비슷한 무게의 일을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백억의 번역은 전투기와 같이 현실적 효용을 염두에 둔 선동 담론으로까지 나아갔다. 정치 담론이라 하더라도 ‘평화’와 같이 보다 추상 수준의 번역물에 기뻐던 백석의 번역 범위와는 거리가 있다. 현재 드러난 바로 볼 때 백억을 백석의 가명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자연스럽게 백억의 번역은 백석의 번역 문헌지에서 빠져야 한다.

넷째, 백서호다. 백서호에 관하여 송준은 흥미로운 말을 붙였다. 곧 1958년도 후반의 “숙청의 분위기에” “백석은 당시 불안했던 자신의 위치를 감지했는지” “아니면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에서” 그런 분위기를 고려해 “번역자 백석의 이름을 비슷한 ‘백서호’로 바꾸었는지도 모른다.”⁷⁴⁾라 한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가명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사정 탓에 백서호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뜻이다. 백서호 번역은 낱책 4종 4권에다 낱글 4회 게재 4편, 그리고 ‘서적 해제’ 1편⁷⁵⁾이 보인다. 낱책은 처음 『끄림

73) 박태일, 「백석과 중국공산당」, 『근대서지』 제18호, 근대서지학회, 2018, 251-279쪽.

74) 송준(2012), 앞의 책, 415쪽.

75) 『끄림의 지하에서』(1957), 『불타는 시절의 이야기』(1958), 『래일의 오늘』(1960), 『브란따스 강의 삼각주에서』, 『들은 언제 눈뜰 것인가』(1960, 『우리 현대인이라

의 지하에서』(1957)부터 ‘과학환상이야기집’ 『래일의 오늘』(1960)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맨 뒤에 쓴 낱글 ‘서적 해제’ 『장편소설 『백양나무』에 대하여』는 『조선문학』 1972년 12월호에 실렸다. 하정희가 쓴 장편소설 풀이글이다. 만약 백서호가 백석의 가명이라면 1972년 해끝까지 백석이 문학사회 활동을 했다는 뜻이다. 자연인으로 백석이 나이 60대로 들어설 때다. 게다가 번역 작품이 아니라 창작 소설에 관한 단평이다. 오늘날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백석은 문학 생애 내내 창작 소설 평을 내놓은 적이 없다. 젊고 위세 있는 소설 비평가들을 두고 고령에, 그것도 10년 가깝게 작품 활동이 없다가 뜬금없이 백석이 창작 소설 단평을 작가동맹 기관지에 실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확실한 실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백서호가 백석의 가명일 가능성은 없다.

다섯째, 한면상이다. 송준은 『쏘련시인선집』(상)(1953)에 ‘박일파’와 함께 ‘한면상’이 나타나는데 그가 백석이라 썼다.⁷⁶⁾ 그 책 속에서 한면상은 9편을 옮겼다. 그는 낱책 8종 8권 번역에다 낱글 1회 게재 1편⁷⁷⁾을 내놓았다. 낱책 가운데는 독역 중편 『오로체브 교수의 실책』이 있다. 낱글로는 예술론 번역 1편이 보인다. 1959년 『모파쌍 단편집』에서는 그가 『행복』과 『씨몽의 아버지』를 옮겼다. 그리고 조선문학가동맹 외국문학분과에서 1950년대 후반에 의욕적으로 기획, 1960년대 초반까지 나왔던 ‘세계문학선집’에서는 6권 『모리에르 희곡선』(1963)을 최규홍과 둘이서 옮

어떤 사람인가?’, 『문학신문』, 1959. 9. 18, 『생활의 호흡, 현대성의 호흡』, 『문학신문』, 1959. 1. 25. 『조국에 드림』, 『문학신문』, 1959. 11. 27. 『과학 계몽 작품의 시정신』,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0. 3. 11. 『장편소설 『백양나무』에 대하여』, 『조선문학』 12월호, 1972, 110-112쪽.

76) 송준 위음(2013), 앞의 책, 855쪽.

77) 『쏘련시인선집』(상)(1953). 『아동 영화의 제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인민성』(1954). 『문학에서의 전형적 형상에 관한 문제』, 『소베트 문학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1954). 『나따샤』, 『쏘련 단편소설집』(2)(1955). 『오로체브 교수의 실책』(1960). 『다섯 딸라』, 『쏘련 단편소설집』(2)(1955). 『행복』·『씨몽의 아버지』, 『모파쌍 단편집』(1959). 『세계문학선집 6 모리에르 희곡선』(1963). 『해방 후 알바니아 조형예술』, 『조선미술』(1960. 3).

졌다. 머리글 『전통 계승과 혁신에 기여한 모리에르의 희곡』은 그가 옮겼다. 한면상이 중심 번역자였던 셈이다. 이 무렵 백석은 자강도에서 잊혀진 듯 묻혀 살고 있을 때⁷⁸⁾다. 게다가 백석은 재북 시기 내내 희곡 작품을 옮겨낸 보기가 현재까지는 볼 수 없다.⁷⁹⁾ 아울러 한면상은 미술 평론 번역에까지 손을 댔다. 『조선미술』에 실은 『해방 후 알바니아의 조형 예술』(1960)이 그것이다.

이로 볼 때 한면상은 희곡에서 예술론, 영화예술을 거쳐 미술 쪽으로 특화한 번역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면상과 같이 공역에 나선 이들은 북한의 제2세대 번역가라 할 수 있다. 보기를 들어 14편 가운데서 2편을 한면상이 옮긴 『쏘련 단편소설집』(2)에서는 강필주, 방희영을 제쳐두면 옮긴이는 백석이나 박영근과 같은 북한 번역 1세대가 아니다. 그 뒤세대다. 『모파쌍 단편집』(1959) 경우는 정도가 더하다. 모두 열네 사람이 번역에 나섰는데 머리글을 옮긴 김병규를 제쳐두면 한면상을 비롯한 열세 사람⁸⁰⁾이 모두 낯선 이름이다. 한면상 또한 그들과 함께 훈련받은 2세대 번역자에 드는 이라 보는 것이 설득적이다. 거기다 번역 말씨에서부터 백석의 것이라 하기에는 못 미친다.

五년전 아직 학생 시절에 나는 아조브 연안에 있는 나의 친척이며 썩호즈 위원장인 이완 나자리치 집을 방문하였다.⁸¹⁾

『나따샤』의 첫 머리 첫 월이다. 백석이라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을

78) 이 점은 다음에 이어질 『리식이 백석이다』에서 드러날 것이다.

79) 독역이건 공역이건 마찬가지다. 『쏘련희곡집』(전동혁·임하 옮김)(1947), 『쏘련희곡집』(1)(1954), 『쏘련 희곡집』(2)(1954), 『쏘련 희곡집』(3)(1955), 『쏘련 희곡집』(4)(1955), 『쏘련희곡집』(5)(1955).

80) 김희철, 전창식 최병남, 최동협, 민남식, 정진중, 진형중, 양영형, 심정기, 정진중, 황경희, 한경수.

81) 와셀리 꾸다체브(한면상 옮김), 『나따샤』, 『쏘련 단편소설집』, 국립출판사, 1955, 179쪽.

번역 작품 첫 자리 첫 낱말을 한자어로 시작할 리 없다. 무엇보다 겨레 말의 발전에 번역이 이바지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인 까닭이다. 게다가 “아조브 연안에 있는”이나 “나는” “나의 친척이며”와 같이 느슨한 표현도 문제다. 백석이였다면 금방 ‘나는 아조브 연안에 사는 친척이며’로 매끄럽게 옮겼을 자리다. 『나타샤』는 아직 역량을 키우고 있는 서툰 번역가의 것이다. 따라서 한면상을 백석의 가명으로 보는 생각은 무리다.

여섯째, 김춘원이다. 그의 번역은 낱책 4종 4권⁸²⁾에 보인다. 송준은 백석이 『쏘련시인선집』(2)(1955)을 내면서 “거의 주도적으로 번역에 참여”하였고⁸³⁾ 『뿌쑤긴 선집』(1)에서 김춘원을 가명으로 썼음을 짚었다. 그런데 『쏘련시인선집』(3)(1955)에서도 백석과 함께 김춘원이 이름을 올렸다. 『체호브 선집』(1)(1954)과 『체호브 선집』(2)(1955)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김춘원이 백석의 가명이라는 단언 뒤 송준은 다른 말을 붙이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김춘원이 작품 제목에 ‘다락집’이란 낱말을 썼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백석이 옮긴 마르샤크의 『동화시집』에서도 나오는 신조어다. 이것을 올린 사실은 김춘원이 백석의 지도를 받는 입장이었거나, 백석의 자장 안에 놓이는 이일 수 있으리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⁸⁴⁾ 그럼에도 확실한 실증 자료가 드러나거나 번역 텍스트 모두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서는 김춘원이 백석의 가명이라 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송준에 의해 제기되었던 백석의 가명을 두고 정부당성을 짚어 나왔다. 여섯 가운데서 박일파(일파)와 리세희는 번역한 시기나 번역 작품의 비중, 번역 범위, 또는 문체로 보아 백석이거나 그가 아니면 이루기 힘든 수준의 것을 내놓은 이다. 백석의 가명이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82) 『쏘련시인선집』(2)(1955)과 『쏘련시인선집』(3)(1955)에서 김춘원은 7편씩을 실었다. 『체호브 선집』(1)(1955)에서는 2편, 『체호브 선집』(2)(1955)에서는 3편을 실었다.

83) 송준 엮음(2013), 앞의 책, 856쪽.

84) 마르샤크(박태일 엮음), 『동화시집』, 도서출판 경진, 2014, 138-191쪽.

없다. 박일파는 백석 기명의 번역 범위와 큰 흐름을 같이하나, 리세희는 각별히 문학사 번역에 주도적으로 쓰고 있음을 보았다. 백석 기명의 번역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활동 영역을 채워주는 이름인 셈이다. 그들에 견주어 백익, 백서호, 한면상, 김춘원은 백석의 가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백익은 중국 문학에 특화된 번역자며, 백서호는 활동 시기가 1970년대까지 올라가는 번역자여서 백석으로 보기 어렵다. 한면상은 희곡과 영화, 예술 쪽으로 특화된 번역자로 백석보다 한 세대 아래로 여겨진다. 김춘원은 화려한 작품 안쪽 터무니를 갖추기 앞까지는 백석과 뭉기 어려운 번역자다. 따라서 글 끝에 붙인 ‘재북 시기 백석 번역 문학 족보기’에는 박일파(일파)와 리세희⁸⁵⁾의 것만 더할 것이다.

85) 이 장에서 번역가 백석의 가명 점검은 송준이 이미 내세운 것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선행 논의자인 그가 꼼꼼한 터무니를 밝히지 않은 현재로서 그 정당성을 엄밀히 따지기는 힘들다. 글쓴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기술을 앞에 두고 최대한 적합한 사료 수집과 배움을 빌려 설득력 있는 결론에 이르는 길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낱낱의 가명 번역 작품과 백석 기명의 번역 작품을 서로 비교, 대조해 나가는, 백석 번역 작품의 문체론적 연구로 들어서는 길이다. 그러나 그 일은 다른 글로 여러 차례 나누어 다루어야 할 큰 일거리다. 게다가 이 글의 논의 목표와도 거리가 있다. 이 글은 이미 알려진 백석 번역 문학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과 발굴을 빌려 재북 시기 백석 번역 문학의 첫 조감도를 마련하고자 한 논의다. 그 과정에서 가명 검증은 한 부분에 그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번역 문체론적 눈길은 필요한 논의 자리에서 텍스트 안쪽 명시 표지로서 번역 말씨나 표현을 짚은 본보기로 끌어들여 활용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내놓은 가명 확정, 곧 송준이 제시한 가명 여섯 가운데서 박일파와 리세희는 백석의 가명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나 나머지 넷은 백석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이제 백석 번역론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의 단초로 올라섰다. 그 정당성과 진위 판단은 뒤선 연구자들이 활발하고 날카롭게 도구해 재북 시기 백석 번역 문학을 향한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기 바란다.

4. 발굴 작품과 조감

앞의 장에서는 이제껏 알려져 온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 작품에 관한 실증적 점검을 마쳤다. 거기다 가명으로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것 가운데 박일파(일파)와 리세희는 백석의 것임을 확정했다. 논의 가운데 소개된 그 둘의 번역물은 고스란히 백석의 새 발굴 작품으로 들맞게 되는 셈이다. 거기다 백석 기명으로 내놓았으나 미발굴로 남아 있는 작품까지 더할 수 있다. 백석 번역의 절대량이 퍼그나 늘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그들을 낱책과 낱글로 나누어 훑은 뒤, 재북 시기 백석 번역 작품의 전모를 짧게 조감할 것이다.

먼저 이 글에서 새로 찾은 낱책이다. 그 가운데서 백석 기명인 것은 3종 3권⁸⁶⁾이다. 『동화와 이야기』(1957)는 본문 256쪽에 35편에 이르는 독역 짐승 우화집이다. 안 표지에는 책 이름에 ‘동물 세계’를 더해 ‘동물 세계 동화와 이야기’로 적었다. 그 뒤쪽에는 「출판사로부터」라는 결텍스트를 붙여 리식이 옮긴 『동물 이야기』(1955)와 맞물린 바를 뚜렷하게 밝혔다.

이 책은 위탈리 비안끼의 동물에 대한 『동화와 이야기』를 번역한 것인바 본 출판사에서 출판된 『동물 이야기』의 속편이다.⁸⁷⁾

『동화와 이야기』는 『동물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30000부를 찍었다. 본문 곳곳에 낱그림을 넣고 화려하게 꾸몄다. 『쏘베트 시문학』(1955)은 제2차 전련맹 쏘베트 작가대회에 이루어졌던 갈래별 보고 가운데서 시 갈

86) 위탈리 비안끼(백석 옮김), 『동화와 이야기』, 교육도서출판사, 1957. 싸메드 부르군, 『쏘베트 시문학』, 『제2차 전련맹 쏘베트작가대회 문헌집』, 국립출판사, 1955, 109-134쪽. 『동화시집』, 연변인민출판사, 1957.

87) 위탈리 비안끼(백석 옮김), 위의 책, 1957, 안표지 뒤쪽. 먼저 나왔던 리식 번역의 『동물 이야기』와 얽힌 관계는 다음에 이어질 「리식이 백석이다」에서 다룰 것이다.

래에 걸린 글이다. 공역한 『제2차 전련맹 쏘베트 작가대회 문헌집』에 실렸다. 흔히 5000권을 넘지 않는 번역 평론집 출판 버릇과 달리 10000부를 찍어 문학사회의 높은 기대를 엿볼 수 있는 책이다.⁸⁸⁾ 마르샤크의 『동화시집』(1957)은 북한 간행본을 두 해 뒤 연변에서 낸 번인본이다.

박일과 기명의 발굴 낱책은 4종 9권이다.⁸⁹⁾ 『예술에 있어서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맑스-레닌주의 미학』은 백석의 첫 비평 번역서다. 전후인 1953년 조소출판사에서 (1), (2)로 나누어 냈던 보리스 싹레보이의 장편 『참된 사랑의 이야기』는 합권해 1954년 모스크바에서 다시 내놓았다. 연변에서 번인본으로도 이어졌다. 이들 합권본과 연결본은 앞장의 가명 논의에서 이미 밝힌 바다. 『동화집』 또한 연변에서 번인본으로 나왔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과 소련, 그리고 중국 겨레사회에서 읽힐 만큼 박일과의 번역은 무겁게 다루어진 셈이다.

리세희 기명으로 옮겨낸 발굴 낱책은 6종 14권이였다.⁹⁰⁾ 『서구라과 문학사』의 경우, ‘중세 초기편’과 ‘문예부흥기 편’은 공역이고, 나머지 ‘18세기편-2’와 ‘19세기편 - 2’, ‘20세기편-3’은 독역이다. 『로씨야 문학사』 경우는 3권과 4권을 리세희가 홀로 맡았다. 『현대의 영웅』(1956)은 이듬해 연변에서 한차례 번인본을 냈다. 스물세 해가 더 지난 1979년에는 2차 번인본까지 나왔다. 백석의 글이 오래도록 연변 겨레사회에 영향을 끼친 셈이다. ‘사회주의 10월혁명 40주년 기념 출판’으로 낸 『우르쭈에서

88) 『조소문화』에 익명으로 먼저 실었다 낱책을 내면서 옮긴이 백석을 밝혔다는 사실은 앞쪽 2장에서 밝혔다.

89) 각주 58) 참조. 박일과가 『조소문화』에 2회로 옮긴 『과분한 영예』를 참조해 연결에서 냈던 책이 『불필요한 영광』이다. 이것은 백석의 번역으로 잡지 않았다. 『불필요한 영광』에 실린 『출판자부터』에 아래와 같은 덧붙이 붙어 있다. “이 책은 잡지 『조소문화』에 전재된 『과분한 영예』에 의하여 본사에서 이미 번역 편집 중에 있었던 상기 원본과 다시 대조하면서 수정을 가하여 출판하게 되었음을 독자들에게 성명하는 동시에 이에 대하여 역자들에게 량해를 바라는 바이다.” 세르게이 워로닌, 『출판자부터』, 『불필요한 영광』, 연변교육출판사, 1957. 속표지.

90) 각주 65) 참조.

은 소년』은 ‘초고중 학생용’으로 30000부를 찍었다.

둘째, 이 글에서 발굴한 낱글 번역이다. 백석 기명으로 된 것은 8회 게재 11편이다.⁹¹⁾ 평론이 1편, 우화시가 1회 게재 2편, 시가 5회 게재 7편, 보고문학이 1편이다. 실린 곳은 『조쏘문화』에다 『인민』, 『청년생활』이다. 매체 범위를 넓히면 백석 번역물을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민』에 올린 「성격 발전의 논리에 대하여」(1952)는 현대 소설가가 갖추어야 할 예술적 기능이나 역량을 문제 삼은 글이다. 백석으로서는 드물게 이야기문학 이론을 읊긴 경우다.

박일과 기명으로 읊긴 발굴 낱글은 13회 게재 14편이다.⁹²⁾ 「어부와 금붕어」(1948)를 처음으로 소설, 문학, 미술에다 음악 평론에까지 걸쳤다. 이들은 대체로 전전기 『조쏘친선』에 실린 것이 중심이다. 소련 문학예술을 자신의 지식으로 녹이고 번역 과업을 제대로 떠맡기 위해 벌였던 여러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리세희 기명으로 읊겨낸 발굴 낱글은 1회 1편이다. 『조쏘친선』에 실은 단편 「늙은이 사트로브」(1949)가 그것이다. 새로 찾은, 백석 기명의 낱글 번역과 박일과·리세희의 것은 이 글 끝에 붙인 ‘백석의 재북 시기 번역 작품 죽보기’에 죄 올렸다.

넷째, 새로 찾은 백석 번역 낱책 가운데서 북한 바깥에서 나온 것이다. 모두 7종 9권에 이른다. 중국 연변 겨레사회와 소련 모스크바에서 나왔다. 연변에서 낸 6종 8권⁹³⁾은 모두 북한 간행본을 고스란히 되찍은 번인

91) 「성격 발전의 논리에 대하여」, 『인민』 제9호, 1952, 120-149쪽. 「첫째 가는 원조자들」, 『청년생활』 제3호, 민주청년사, 1954, 46-50쪽. 「쏘베트 시문학」, 『조쏘친선』 1, 조쏘출판사, 1955, 109-134쪽. 「벌」·「마왕과 그 말들」, 『조쏘문화』 6호, 조쏘출판사, 1956, 52쪽. 「그대를 불러 안해라 하려 함은」, 『조쏘문화』 3호, 조쏘출판사, 1957, 35쪽. 「나의 어린 벗들에게」, 『조쏘문화』 6호, 조쏘출판사, 1958, 36쪽. 「사나운 비바람 소리」,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9. 4. 30. 「어머니-조국이 안아 주었나니」·「도로 건설자」, 『조쏘문화』 12호, 조쏘출판사, 1961, 10-12쪽. 「일리아치」·「흙날리여라, 소용돌이치며」,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1. 4. 21. 다만 「쏘베트 시문학」은 『조쏘친선』에 익명으로 실었으나, 낱책에 올리면서 백석 기명을 했다. 낱책으로 잡아 씬에서는 뺐다.

92) 각주 58) 참조.

본이다. 『쏘련시인선집』은 (상권)만 내고 그 뒤 『쏘련시인선집』(2)와 (3)은 내지 않았다. 그 뒤를 『참된 사람의 이야기』, 『동화집』, 『동화시집』, 『현대의 영웅』이 따른다. 『로씨야 문학사』의 (3)과 (4) 또한 비중 있는 변인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 6종 8권에다 이미 알려진 『이싸킴쓰키 시초』(1954)와 『뿌쉬긴 시초』(1954)를 더하면 중국 연변에서 나온 백석의 낱책 출판본은 마무리된다. 여기에 모스크바 외국문서적출판사에서 박일파 기명으로 낸 『참된 사람의 이야기』 1종 1권을 더한다.

앞에서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백석의 번역 작품을 훑었다. 낱책 13종 26권, 낱글 22회 26편이다. 이들을 기존에 알려진 것에서 점점을 거쳐 확정된 백석의 번역, 곧 낱책 32종 32권, 연속간행물에 실은 낱글 43회 게재에 51편을 더하면 재북 시기 백석 번역의 총량이 잡힌다. 낱책 50종 58권에 낱글 66회 게재 71편이다.⁹⁴⁾ 그 가운데 낱책은 독역 23종 28권, 공역 17종 19권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 바깥 연변과 모스크바에서 나온 9종 11권을 포함한다. 재북 시기 번역가 백석의 활동이 매우 방대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들을 두고 원천 작가의 국가별 통계를 따지는 일은 큰 뜻이 없다. 소련을 중심으로 그 위성국과 중립국에까지 걸치는 넓은 범위지만, 작품은 모두 러시아어에서 옮긴 결과물인 까닭이다.

실은 매체로 볼 때 『조쏘친선』(『조쏘문화』)에다 『문학예술』(『조선문학』) 그리고 『문학신문』, 『아동문학』에 쏠림이 두드러진다. 낱글만 보자면 전체 49편 가운데서 45편이 이들 넷에 실렸다. 북한 조선작가동맹 기관지가 중심이었다. 거기다 드물게 『인민』, 『청년생활』이 끼었다. 백석의 번역 활동은 문학사회 안쪽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문학신문』과 『아동문학』은 백석이 편집위원까지 맡았던 터다. 북한의 번역사회는 잡지

93) 『참된 사람의 이야기』. 1954. 『쏘련시인선집』(상), 1954. 『동화집』, 1956. 『동화시집』, 1957. 『현대의 영웅』, 1957. 『현대의 영웅』, 1979. 『로씨야 문학사』(3), 1958. 『로씨야 문학사』(4), 1958.

94) 재수룩한 『굴리아 시집』의 3편, 낱책 『레닌』에 실린 『레닌과 난로공』, 『쑤베트 시문학』을 빼 숫자다. 2회 연재소설 『과분한 영예』는 1편으로 잡았다.

『번역 월간』이 대표하는 사상, 정치, 사회 영역 매체와 문학예술 번역 매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백석은 『번역 월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예술 평론도 옮겼으나 예술사회 기관지인 『조선미술』이나 『조선예술』·『조선음악』·『조선영화』와 같은 매체의 번역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을 눈여겨 볼 일이다. 그들 기관 매체의 주체나 편집진과 연고가 없었던 셈이다. 낱책을 낸곳 또한 문학 영역 출판에 주력했던 문화전선사나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에도 소비에트 연맹을 중심으로 한 문학예술 작품과 이론, 동향 소개에 앞장 섰던 조쏘출판사에 쏠리고 국립출판사와 청년생활사가 드물게 끼어드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번역 활동이 문학사회 경계 안쪽에 머물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읽을 수 있는 지표다.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 활동은 문학사회 안쪽에서 문학인으로서 자기 삶의 중심과 정위를 뚜렷이 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여느 번역가가 이루지 못한 방대한 양의 번역을 일구었다. 문학인으로서 남달리 고투했을 마음자리를 암시하는 사실이다.

갈래로 볼 때 백석의 번역은 시, 소설, 어린이청소년문학, 평론과 같은 문학 안쪽에서부터 소수지만 미술, 음악, 영화에 이르는 예술 영역에다 전기, 현장문학까지 걸치고 있어 범위와 폭이 넓고 다채롭다. 문학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시다. 낱글 꼴로 올린 번역시만 34회 42편이다. 전체 낱글 번역의 58%가 시다. 그러나 외형으로 본다면 장편을 포함해 10권을 넘는 소설이 더 무겁다. 어지간한 번역가들이 거의 소수에 머문 결과에 견준다면 백석 번역이 지닌 압도적인 양감은 뚜렷하다. 문학예술 평론은 전쟁기를 전후한 초기 활동에 잦았다.⁹⁵⁾ 소비에트 사회주의 문학예술 이론 도입 앞자리에서 그 일을 빌려 자기 학습과 문학적 처신에 활용했을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눈여겨 볼 사실은 영화 언어에 관한 평론이다. 백석이 가장 늦게 내놓은 번역이다. 문학 갈

95) 이 점은 백석 번역의 중심 발표 매체 가운데 하나인 『조쏘친선』의 미발굴분을 다 얻을 수 있다면 늘어날 일이다.

래에서 희곡 번역을 볼 수 없는 현상과는 달리, 이미 종합예술과 공연예술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백석의 입지를 보여 주는 활동이다. 현장문학(오체르크)과 전기가 끼이지만, 현실 정치나 직접적인 선전·선동에 이바지할 사상 번역물 유형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 드러난 바로 백석 번역은 문학예술 바깥 자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는 특성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다루더라도 ‘평화’라는 사회주의권 보편, 추상 수준의 덕성 교양이나 국제주의 친선이라는 이상 가치에 맞물리는 번역이다. 이러한 징후는 다른 문학 번역가에 견주어 활동 범위가 넓고 다채롭다는 특성과는 또 다른, 북한 사회 안쪽에서 백석이 지녔던 정치적 의식/무의식의 밑자리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연대기로 볼 때 백석의 번역은 1947년 소설 『자랑』에서부터 1961년의 『예술 영화의 씨나리오와 언어』에 이른다. 재북 시기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 활동을 보여 준 셈이다. 게재 회수로는 각별히 1955년부터 1958년까지 활동이 활발했다. 그 가운데서도 1957년이 단연 압도적이다. 회수로 24회 발표에 이른다. 이어서 1958년의 13회, 1956년의 9회, 1952년의 8회, 1955년의 7회로 이어진다. 1952년 8회 발표분은 거의 모두 이 글에서 발굴한 것이다. 기존 논의 과정에서 살피지 못했던 『조쑤친선』을 새로 펼치고, 박일과 기명의 것을 더한 결과다. 매체 발굴이 이어지면 앞으로 작품이 더 늘 수 있을 것이다. 낱책은 출판이 꾸준했다. 각별히 그가 두드러진 번역 활동을 한 1955년부터 1958년 시기는 그의 또 다른 특장인 어린이시 창작의 활발함과 겹친다. 백석으로서는 자신의 모든 문학 역량과 가능성을 문학사회 안쪽에 뚜렷하게 드러낸 때인 셈이다. 자연인으로서 40대 무렵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재능이 더욱 빛날 수 있었을 50대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활동을 접고 문학사회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맞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묻을 수 없었던 백석의 남다른 번역 역량과 놀라운 문학적 헌신은 이 글 끝에 붙인 ‘재북 시기 백석 번역 문학 죽보기’가 웅변해 준다.

백석은 재북 시기 내내 꾸준하게 여러 갈래와 유형에 걸쳐 많은 양의 번역을 내놓았다. 매체로 보나 갈래로 보나, 백석의 번역은 문학사회 안쪽에 머무는 특성을 보여 준다. 문학 바깥의 현실 정치, 이념 선동의 장으로 나돌거나 관련 번역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백석이 지키고자 했던 문학주의자의 입장에 한결같았던 셈이다. 그러면서도 백석은 북한 번역 문학사에서 초기부터 가장 열정적으로 작업을 떠맡았던 북한 최대의 번역가라는 평가에 모자람이 없다. 이 점은 오래도록 이른바 조선작가동맹 외국문학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박영근이나, 전형적인 영문학자로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살았던 립학수의 번역 활동에 견주면 금방 드러난다. 북한 초기의 번역 문학사회는 제도권 학교 안쪽의 외국문학 전공자가 아니라, 번역을 과업으로 삼았던 조선작가동맹 외국문학분과에 몸담았던 순정 번역가들이 중심이었다. 그런 속에서 번역과 창작 사이를 드나들면서도 두 쪽 모두에서 빛나는 업적을 보여 준 작가 백석의 재능과 성취는 더욱 우뚝하다.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 문학사 전개에서 백석에 관한 공부가 더욱 깊어지고 두터워져야 하는 까닭이다.

5. 백석 번역론을 향하여

재북 시기 백석은 한결같이 번역을 자신의 중심 과업으로 끌고 나갔다. 집체주의 북한에서 개인 백석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까라는 놀라움을 갖게 한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백석에게 번역은 사회주의 체제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한 얇으나 어쩔 수 없었던 외투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 정치나 개별 창작 활동과 달리 번역은 간접적인 2차 담론인 까닭이다. 그런데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 문학에 관해서는 정선태와 송준 그리고 이상숙이 관심을 본격화한 뒤 오늘날까지 큰 진전이 없

었다. 게다가 기존 정보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까지 도사리고 있었다. 그를 두고 학문 공동체에서 응답을 했어야 할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본고는 이제까지 이루어진 재북 시기 백석의 번역 문학에 관한 실증적인 점검을 빌려 온전한 문헌지는 물론 앞으로 백석 번역 문학론으로 나아갈 밑자리를 다지기 위해 이루어졌다. 논의를 줄여 마무리로 삼는다.

첫째, 오늘날까지 알려진 재북 시기 백석 번역 문학의 총량은 송준이 평전 『시인 백석』(3)과 『백석 번역시 전집』(1)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낱책 경우에는 실물 확인이 되지 않거나 확인이 미심쩍은 것, 또는 백석의 번역이 아닌 것을 잡은 경우가 7권이었다. 게다가 스스로 백석의 가명이라 말했던 이의 번역을 빼거나, 북한 바깥에서 낸 번역물은 다 다루지 않았다. 연속간행물에 실은 낱글에서는 글쓴이가 확인하지 못했거나 실렸다고 적은 해당 호수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 6편을 제쳐 두고 살펴보면 거기서도 다시 실증적인 잘못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번역이 아닌 정론을 번역으로 잡은 것 1편, 작품 제목이나 실린 매체를 잘못 적거나 중복 게재한 경우 6편, 실린 해달날(년월일)을 잘못 적은 경우 5군데, 익명으로 냈거나 다른 번역자의 작품을 백석의 것으로 잡은 경우가 3편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고 보면 기존에 알려진 정보에서 확정할 수 있는 백석 번역 문학은 낱책 32종 32권과 낱글 45회 게재 62편이다.

둘째, 번역가 백석의 가명 회정은 그의 번역 문학의 실증적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가명만도 박일파(일파), 리세희, 백역, 백서호, 한면상, 김춘원이다. 그 가운데서 박일파는 광복기부터 비중 있는 번역 활동을 하였고, 말씨에서 시인 백석이 아니고는 할 수 없을 표현과 창의적인 조어력을 보인다. 게다가 그의 번역 범위는 백석 기명의 번역과 고스란히 겹친다. 리세희는 서구와 러시아 문학사 번역에 무거운 업적을 남긴 번역자다. 이미 알려진 백석의 번역 활동에다

리세희의 것을 더하면 백석 번역의 너른 조감도가 비로소 채워질 정도다. 이들 둘과 달리 나머지 넷은 백석과 겹치는 자리가 흐릿하다. 백석은 중국 문학에 본격적으로 나선 번역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백석호는 백석이 문학사회에서 잊힌 채 살고 있었던 1972년에 뜬금없이 장편소설에 관한 서적 해제를 내놓은 사람이다. 한면상은 백석보다 한 세대 아래 번역가로 보인다. 김춘원은 백석의 자장이 설핏 엿보이나 실증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한 동일인으로 잡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을 빌려 박일파(일파)와 리세희를 백석의 가명으로 확정한다.

셋째, 새로 발굴한 백석의 번역은 『동화와 이야기』를 비롯한 백석 기명의 낱책 3종 3권과 낱글 8회 게재 11편이 먼저다. 박일파 기명의 낱책 4종 9권과 낱글 13회 게재 14편, 리세희 기명의 낱책 6종 14권과 낱글 1회 게재 1편이 뒤를 잇는다. 이들을 기존에 알려졌던 백석의 번역 작품에 더하면 이제 재북 시기 백석 번역 문학의 총량은 낱책 50종에 58권, 낱글 66회 게재 71편에 이른다. 거기에는 중국 연변 겨레 자치주 연길과 소련 모스크바에서 나온 것 9종 11권이 포함된다. 발표 매체로 살펴보면 조선작가동맹 기관지가 중심이었다. 백석의 번역 활동이 문학사회 안쪽에 머무는 쏠림 현상을 보이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방대한 양의 번역을 한 것은 문학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극대화하고자 한 유별난 노력과 헌신을 엿보게 한다. 백석은 문학에서부터 예술 영역까지 번역의 손길을 뻗었다. 희곡 번역이 보이지 않으나, 후반기에 나타나는 영화 언어론 번역이 그 점을 넘어선 폭넓은 관심을 보증한다. 연도로 볼 때 백석은 1947년부터 1961까지 재북 시기 내내 번역 활동을 했다. 발표 횟수로 보자면 1957년을 정점으로 그 앞뒤 시기가 가장 활발했다. 창작에서도 어린이시집 네 권 가운데 3권을 토해내듯 내놓았던 때다. 문학인으로서 백석의 역량이 가장 뚜렷하고도 두드러지게 드러난 시기였던 셈이다.

이 글로 말미암아 백석이 북한 초기 최대 번역가라는 말은 부풀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문학사회 안쪽 번역에 머물고 있는 그의

문학주의 노선을 짐작하게 이끈다. 아울러 그의 번역 활동은 고스란히 북한 초기 문학사 전개와 맞물려 있음을 놓치지 말 일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백석 문학론은 번역 활동과 문학사 사이의 길항 관계에 두텁게 눈길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본 논의는 백석의 재북 시기 번역 문학 활동을 실증적으로 확정하고 새로운 문헌을 발굴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백석의 재북 시기 번역 문학의 밑그림을 다지고자 한 일이다. 가명, 익명 논의를 더하고 문헌 작품을 거둬 찾아 가면서 백석 번역의 속살에 깊숙이 들어서는 창의적인 작업이 거듭거듭 이어지기를 바란다.

재북 시기 백석 번역 작품 죽보기

1. 날책

1) 독역

- 콘스판젠 씨모놉호⁹⁶⁾, 『낮과밤』, 로동신문사, 1947.
 솔로호브,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다』, 북조선국립출판사, 1947.
 파세예브, 『청년근위대』(제1부), 민주투쟁사, 1948.
 솔로호브, 『고요한 돈』(제1권) 솔로호브, 교육성, 1949.
 솔로호브, 『고요한 돈』(제2권), 솔로호브, 교육성, 1950.
 『평화의 깃발』(평화옹호세계시인집), 문화전선사, 1950.
 이 브르보아(박일파 옮김), 『예술에 있어서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맑스-레닌주의 미학』, 문예총출판사, 1952.
 빠블렌코, 『행복』, 국립출판사, 1953.
 보리스 빨레보이(박일파 옮김), 『참된 사람의 이야기』(1), 조쏘출판사, 1953.
 보리스 빨레보이(박일파 옮김), 『참된 사람의 이야기』(2), 조쏘출판사, 1953.

96) ‘백석’이 홀로 내놓은 번역은 옮긴이 이름을 따로 적지 않았다. 그밖에 가명 박일파(일파), 리세희, 리식으로 내놓은 작품의 경우나 익명의 경우는 사실을 밝혀 적었다.

- 엔 노쑈브, 『학교와 가정에서의 위짜말레예브』,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 웨 웨 이바쇼바(리세희 옮김), 『서구라파문학사: 19세기편-2』, 교육도서출판사, 1955.
- 웨 웨 이바쇼바(리세희 옮김), 『서구라파 문학사: 18세기편-2』, 교육도서출판사, 1957.
- 엘 게 안드레예브(리세희 옮김), 『서구라파 문학사: 20세기편-3』, 교육도서출판사, 1958.
- 츄고브쓰끼(박일파 옮김), 『동화집』, 교육도서출판사, 1955.
- 보리쓰 빨레보이(박일파 옮김), 『참된 사람의 이야기』, 조쏘출판사, 1955.
- 쓰 마르샤크, 『동화시집』, 민주청년사, 1955.
- 세르게이 울노브, 『참나무골 타령』, 국립출판사, 1956.
- 레르몬토프(리세희 옮김), 『현대의 영웅』, 조쏘출판사, 1956.
- 엘 위론꼬바, 『해 잘 나는 날』, 민주청년사, 1956.
- 데 데 블라고이(리세희 옮김), 『로씨아 문학사』(3), 교육도서출판사, 1957.
- 데 데 블라고이(리세희 옮김), 『로씨아 문학사』(4), 교육도서출판사, 1958.
- 위팔리 비안끼, 『동화와 이야기』, 교육도서출판사, 1957.
- 아 콜루베바(리세희 역), 『우르쭈에서 온 소년』, 교육도서출판사, 1957.
- 드미트리 굴리아, 『굴리아 시집』(조쏘문고 15), 조쏘출판사, 1957.
- 게보르그 에민, 『말하라 에르메니아여』, 조쏘문고출판사, 1957.
- 게 그리션·아 노르멜, 『나무 잎새는 떨어진다』,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8.
- 엔 아 쾨, 『신과 영웅들』(희랍신화집),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8.

2) 공역

- 뿌쉬깁(백석, 일파 외 옮김), 『뿌쉬깁 시집』, 1949.(백석, 일파 외 옮김)
- 『쏘련시인선집』(상), 국립도서출판사, 1953.(백석: 6편, 박일파: 3편)
- 『쏘련 시인 선집』(2), 국립출판사, 1955.(백석: 17편)
- 『쏘련 시인 선집』(3), 국립출판사, 1955.(백석: 7편)
- 웨 엠 지르문스끼·아 아 쓰미르노브·엠 빼 알렉세예브(박정중·백만기·리세희 옮김), 『서구라파 문학사: 중세 초기편』, 교육도서출판사, 1953.
- 웨 엠 지르문스끼·아 아 쓰미르노브·엠 빼 알렉세예브(박정중, 백만기, 리세희 옮김), 『서구라파 문학사』(문예부흥기 편), 교육도서출판사, 1953.
- 체호브, 『체호브 선집』(1), 조쏘출판사, 1954.(백석: 10편)

- 체호브, 『초원』, 『체호브 선집』(2), 조소출판사, 1955. 3.
- 아 트와르드브스끼(백석·최창섭 옮김), 『와실리 쪼르긴』,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10. 25.
- 드미트리 나기쉬긴, 『동화론』, 『아동과 문학』(쏘련아동문학평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 싸메드 부르군, 『소베트 시문학』, 『제2차 전련맹 소베트작가대회 문헌집』, 국립출판사, 1955.
- 와실리 라호브쓰끼(리세희 옮김), 『새 세대와 낡은 세대』, 『쏘련 단편 소설집』(3), 국립출판사, 1955.
- 이 그린베르그, 『서정시의 무기』, 『쏘련문학평론집』, 국립출판사, 1956.
- 뿌슈긴, 『뿌슈긴 선집』(1), 조소출판사, 1956.(백석: 13편, 박일파: 12편, 리세희: 7편)
- 레르문토프(백석·박우천 외 옮김), 『레르문토프 시선집』, 조소출판사, 1956.(백석: 3편).
- 나킴 히크메트(백석·전창식·김병욱 옮김), 『나킴 히크메트 시선집』, 국립출판사, 1956.(백석: 38편).
- 라쉴 감자토프(백석 외 옮김), 『서정시』, 조소출판사, 1956.(백석: 8편)
- 니콜라이 쪼호노브(백석·리효운 옮김), 『리콜라이 쪼호노브 시 선집』, 조소출판사, 1957.(백석: 75편)
- 『레닌과 난로공』, 『레닌』, 조소출판사, 1957.

3) 중국 간행본

- 이싸콤평쓰끼, 『이싸콤평쓰끼 시초』, 연변교육출판사, 1954.(백석: 13편)
- 뿌쉬긴(박소풍 역), 『뿌쉬긴 시초』, 연변교육출판사, 1954. 8.(백석: 9편, 일파: 7편)
- 보리쓰 빨레보이(박일파 옮김), 『참된 사람의 이야기』, 연변교육출판사(번인본), 1954.
- 『쏘련시인선집』(상), 연변교육출판사(번인본), 1954.
- 츄고브쓰끼(박일파 옮김), 『동화집』, 연변교육도서출판사(번인본), 1956.
- 쓰 마르샤크(백석 옮김), 『동화시집』, 연변인민출판사(번인본), 1957.
- 레르문토프(리세희 옮김), 『현대의 영웅』, 연변인민출판사(번인본), 1957.
- 레르문토프(리세희 옮김), 『현대의 영웅』, 연변인민출판사(2차 번인본), 1979.

데 데 블라고이(리세희 옮김), 『로씨아 문학사』(3), 연변교육출판사(번인본), 1958.
 데 데 블라고이(리세희 옮김), 『로씨아 문학사』(4), 연변교육도서출판사(번인본),
 1958.

4) 소련 간행본

보리스 뵘레보이(박일파 옮김), 『참된 사람의 이야기』, 모스크바: 외국문서적출
 판사, 1954.

2. 낱글

알렉산들 야킴볼레브⁹⁷⁾, 『자랑』(단편), 『조쏘문화』 6호, 조쏘출판사, 1947, 176-
 195쪽.

뿌우스킨(일파 옮김), 『어부와 금붕어』(시), 『어린이』 7·8월호, 개벽사, 1948,
 8-18쪽.

리세희 옮김, 『늙은이 사트로브』(단편), 『조쏘친선』 10월호, 조쏘출판사, 1949.
 소애매, 『전선으로 보내는 선물』(시), 『문학예술』 1월호, 문화전선사, 1950,
 97-98쪽.

알렉세이 쭈르꼬브(박일파 역), 『복수자들의 계명』(시)·『원췌는 내 집에 들어왔
 다』(시), 『조쏘친선』, 100월호, 조쏘출판사, 1951, 31쪽.

아 예골린(일파 옮김), 『위대한 로씨야 작가 고골리-엔 웨 고골리의 서거 100주
 년에 제하여』(평론), 『문학예술』 3월호, 문예총출판사, 1952, 75-85쪽.

아 쭈르꼬브(일파 옮김), 『시대의 발걸음』(시)·예 돌마또브스끼(일파 옮김), 『미
 래의 바다에서』(시), 『조쏘친선』 4월호, 조쏘출판사, 1952, 42-43쪽.

찌혼 흐레니꼬브(일파 옮김), 『쏘베트 작곡가 동맹의 제5차 전원회의 종결』(평
 론), 『문학예술』 5월호, 문예총출판사, 1952, 109-111쪽.

웨 베르쭈브(박일파 옮김), 『마야꼬브스끼의 언어와 뿌쉬킨의 전통』(평론), 『문
 학예술』 6월호, 문예총출판사, 1952, 101-108쪽.

아 까라가노브(박일파 옮김), 『극적 갈등의 형상화에 대하여』(평론), 『문학예술』
 7월호, 문예총출판사, 1952, 141-148쪽.

웨 예르밀로브(박일파 옮김), 『벗나무 제2부에 대하여』(평론), 『조쏘친선』 8월호,
 조쏘출판사, 1952, 56-62쪽.

97) 본문에서는 ‘알렉산들 야킴볼렘’으로 적었다.

- 엠 쉬께린, 「성격 발전의 논리에 대하여」(평론), 『인민』 제9호, 민주조선사, 1952, 120-149쪽.
- 폰스판젠 씨모노브(박일과 율김), 「붉은 광장」(시), 『조소친선』 11월호, 조소출판사, 1952, 68-69쪽.
- 박일과 율김, 「쏘베트 미술의 거대한 성과-잡지 『에쓰꾸쓰트브』에서」(평론), 『문학예술』 1월호, 문예총출판사, 1953, 150-156쪽.
- 므 고리끼, 「아동문학론 초」(평론), 『조선문학』 3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 프 깔리닌, 「첫째 가는 원조자들」(현장문학), 『청년생활』 제3호, 민주청년사, 1954, 46-50쪽.
- 니콜라이 그리바초브, 「먼데로부터 도라와」(시), 『조소문화』 1호, 조소출판사, 1955, 57-58쪽.
- 싸메드 부르군, 「쏘베트 시문학」(평론), 『조소친선』 1호, 조소출판사, 1955, 109-134쪽.
- 아 네도고노브, 「농촌 쏘베트에 나뭇기는 깃발」(시)·라솔 감자또브(박일과 율김), 「건설 기사의 가족」(시), 『조소문화』 2호, 조소출판사, 1955, 100-106쪽.
- 엠 솔로호브, 「조국 찬송」(단편), 『조선문학』 6월,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 아 야신, 「전야는 노래 속에」(시), 『조소문화』 9호, 조소출판사, 1955, 41-42쪽.
- 벨라 아흐마둘리나, 「젓나무」(시), 『조소문화』 10호, 조소출판사, 1955, 55쪽.
- 아 뜨왈로브쓰끼, 「레닌과 난로공」(시), 『조선문학』 4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72-76쪽.
- 웨 루고브쓰꼬이, 「아무다리야 강 우의 젼쓰나라드」(시), 『조소문화』 5호, 조소출판사, 1956, 45-48쪽.
- 와가르샤 노렌츠, 「마을의 가을」(시), 『조소문화』 9호, 조소출판사, 1956, 61-62쪽.
- 제미얀 베드니, 「벌」(우화시)·아베틱 이싸칸, 「마왕과 그 말들」(중세기 희작 우화시), 『조소문화』 6호, 조소출판사, 1956, 52쪽.
- 게이 워로닌(박일과 율김), 「과분한 영예」(중편소설, 1회), 『조소문화』 7호, 조소출판사, 1956, 50-87쪽.
- 쎄르케이 워로닌(박일과 율김), 「과분한 영예」(중편소설, 2회), 『조소문화』 8호, 조소출판사, 1956, 47-64쪽.
- 위딸리 비안끼, 「깜찍한 여우와 어진 물오리」(동화시), 『아동문학』 9월호, 조선

- 작가동맹출판사, 1956, 44-45쪽.
- 브 느 판다(인도), 「나는 조선의 정신으로 숨쉬리라」(시), 『조선문학』 11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149-151쪽.
- 와스퍼크툼플리, 「굴복하지 않으리라!」(시), 『문학신문』, 1956. 12. 6.
- 쎄르게이 와셀리에브, 「조국 강토」(시), 『조소문화』 1호, 조소출판사, 1957, 44쪽.
- 막심 땅크, 「표장」(시), 『조선문학』 2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 꼰쓰판전 씨모노브, 「그대를 불러 안헤라 하려 함은」(시), 『조소문화』 3호, 조소출판사, 1957, 35쪽.
- 엘레나 베르만, 「숨바꼭질」(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7. 4. 25.
- 에쓰 다닐로브, 「어부들」(시) · 드미뜨리 쎄묘노브쓰끼, 「직포공」(시), 『조소문화』 6호, 조소출판사, 1957, 23쪽.
- 백석 읊김, 「빠꼭새」(네네츠 옛'이야기), 『아동문학』 5월 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18-22쪽.
- 마르가리따 아가쉬나, 「조선에 여름이 온다」(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7. 6. 26.
- 미하일 솔로호브, 「말은 하나다」(소설),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7. 7. 25.
- 엠 아가쉬나, 「나는 말한다」(서사시), 『조선문학』 7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110-115쪽.
- 마르가리따 아가쉬나, 「쓰딸린그라드 아이들」(시), 『아동문학』 7월 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16-17쪽.
- 마르가리따 아가쉬나, 「기차 안에서」(시), 『조소문화』 8호, 조소출판사, 1957, 32쪽
- 엘레나 베르만, 「『황혼』의 사상성」(평론), 『조선문학』 9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128-144쪽..
- 드미뜨리 굴리아, 「아브로라」(시) · 「레닌」(시) · 「동지에게」(시)(『굴리아 시집』에서 재수록), 『조소문화』 10호, 조소출판사, 1957, 18-21쪽.
- 아 샤흐브, 「해를 만나다」(단편), 『조소문화』 9호, 조소출판사, 1957, 20-28쪽.
- 에 에브뤼센꼬, 「10월」(시), 『조선문학』 11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70-71쪽.
- 쓰 마르샤크, 「왜 고양이를 고양이라 이름 지었나」(동화시) · 「어린이의 날」(시)(익명) · 「새끼범」(유년 동시)(익명), 『아동문학』 11월호, 1957, 69쪽.
- 에쓰 엔 쎄계예브첸스끼, 「1814년 8월의 레닌」(소설),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7. 11. 7.

- 에쓰 마르샤크, 『손자와의 이야기』(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7. 11. 21.
마르가리따 아가쉬나, 『오솔길-조선의 한 시인에게』(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7. 12. 26.
안와르 싸타트, 『동방의 형제들』(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8. 1. 2.
아 톨쓰또이, 『창작의 자유를 논함』(평론),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8. 1. 16.
웨 쩌모페예바, 『생활의 시'적 탐구-웨 오웨이킨의 세계』(평론),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8. 2. 6.
막썸 땅크, 『내 바라옵기는……』(시) · 『어머니의 손』(시) · 『동산』(시), 『조쑤문화』 3호, 조쑤출판사, 1958, 29-30쪽.
엠 배늑, 『봄 소나기』(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8. 4. 10.
일리아 쉐빈쓰끼, 『풍경』(시) · 이오쎬프 고라(체코슬로바키아), 『붉은 광장에서』(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8. 5. 8.
에쓰 미할꼬브, 『카나리아와 고양이』(우화시), 『아동문학』 5월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71쪽.
안나 아흐마또바, 『아이들은 말한다』(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8. 5. 29.
드미뜨리 굴리아, 『나의 어린 벗들에게』(시), 『조쑤문화』 6호, 조쑤출판사, 1958, 36쪽.
백석 읍깁, 『국제 반동의 도전적인 출격』(평론),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8. 11. 6.
릴리니유 미카이야, 『사나운 비'바람 소리』(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9. 4. 30.
프란씨스쿠 죠제 텐레이루, 『서사시』(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0. 2. 5.
엠 뚜르쑤 자체, 『어머니-조국이 안아 주었나니』(시) · 『도로 건설자』(시), 『조쑤문화』 12호, 조쑤출판사, 1961, 10-12쪽.
게 끼끼노브, 『일리치』(시) · 아 아끄빌레브, 『흘날리여라, 소용돌이치며』(시),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1. 4. 21.
아 도브쎬꼬, 『예술 영화의 씨나리오와 언어』,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61. 11. 10.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1) 1차문헌

- 고형진, 『백석 시의 물명고-백석 시어 분류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원, 2015.
- 김문주 외 엮음, 『백석 문학전집 2 산문·기타』, 서정시학, 2012.
-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98.
- 정선태 엮음, 『백석 번역시 선집』, 소명출판, 2012.
- 송준, 『시인 백석』(3), 횡당나귀, 2012.
- 송준 엮음, 『백석 번역시 전집』(1), 횡당나귀, 2013.
- 게 그리션·아 노르멜(송준 엮음), 『나무 잎새는 떨어진다』, 청문각, 1998.
- 마르샤크(박태일 엮음), 『동화시집』, 도서출판 경진, 2014.
- 미하일 솔로호프(윤해연 외 엮음), 『고요한 돈』(1), 서정시학, 2013.
- 미하일 솔로호프(윤해연 외 엮음), 『고요한 돈』(2), 서정시학, 2013.
- 솔로호프(송준 엮음),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다』, 청문각, 1998.
- 엔아 쿤(라리사 외 엮음), 『희랍 신화집』, 서정시학, 2016.
- 『백석의 단행본 목록』,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2012. 9. 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5/2012090502736.html?related_all

2) 2차문헌

- 박태일, 『백석이 옮긴 마르샤크의 『동화시집』』, 『비평문학』 52집, 한국비평문학회, 2014, 161-200쪽.
- 박태일, 『백석의 어린이 시론』, 『아동문학』 연간평, 『현대문학이론연구』 6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191-223쪽.
- 박태일, 『북한문학 연구와 중국 번인본』, 『외국문학연구』 57집, 한국외국

- 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 145-172쪽.
- 박태일, 「삼수 시기 백석의 새 평론과 언어 지향」, 『비평문학』 62집, 한국비평문학회, 2016, 133-167쪽.
- 박태일, 「북한 초기 번역론 실증(1)」, 『한국지역문학연구』 제10집, 한국지역문학회, 2017, 82-120쪽.
- 박태일, 「북한 초기 번역론 실증(2)」, 『한국지역문학연구』 제12집, 한국지역문학회, 2018, 76-104쪽.
- 박태일, 「백석과 중국공산당」, 『근대서지』 제18호, 근대서지학회, 2018, 251-279쪽.
- 이경수, 「마르샤크의 『동화시집』 번역을 통해 본 『집게네 네 형제』 창작의 의미」, 『비교한국학』 23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179-211쪽.
- 이상숙, 「백석 번역시 연구를 위한 시론 - 북한 문학 속의 백석 III-」, 『비평문학』 46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33-64쪽.
- 이상숙, 「백석의 번역 작품 「자랑」, 「숨박꼭질」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7호, 한국근대문학회, 2013, 99-154쪽.

2. 북한 문헌⁹⁸⁾

1) 1차문헌

- 『소년단』·『아동문학』·『문학예술』·『청년생활』·『문학신문』·『청년문학』·『새세대』·『로동신문』·『조쏘친선』·『조쏘문화』·『조선문학』·『말과글』·『조선신문』·『인민』
- 『1962 문학 작품 년감』,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 박영근, 「번역 문학의 사상예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학신문』, 문학신문사, 1959. 8. 18.

98) 백석의 번역 작품이 실린 낱책과 낱글들은 ‘재북 시기 백석 번역 문학 죽보기’로 미루어 올리지 않는다.

- 백석, 『1956년도 『아동문학』에 발표된 신인 및 씨클 작품들에 대하여-운문』, 『아동문학』 12월 호, 1956, 76-80쪽.
- 『문예상식』,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 겐나지 고르(한면상 옮김), 『오로체브 교수의 실책』, 조쏘출판사, 1960.
- 로신(백억·양운한 옮김), 『로신선집』(1), 국립출판사, 1956.
- 로신(안효상 옮김), 『로신선집』(2) 국립출판사, 1957.
- 로신(배호 외 옮김), 『로신선집』(3), 국립출판사, 1957.
- 모파쌍(한면상 외 옮김), 『모파쌍 단편집』, 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9.
- 미하일 솔로호브(변문식 옮김), 『고요한 돈』(1)·(2), 조쏘출판사, 1956
- 보른코브(한면상 옮김), 『아동 영화의 제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인민성』, 국립출판사, 1954.
- 보리쓰 고르바토프(정국록 옮김), 『정복되지 않는 사람들』, 국립도서출판사, 1953.
- 야 르 고리끼(최일룡 옮김), 『아르파모노브 일가의 사업』(고리끼선집 제 1집), 국립출판사, 1955.
- 야 르야쓰니코브(한면상 옮김), 『문학에서의 전형적 형상에 관한 문제』, 『쑤베트 문학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국립출판사, 1954.
- 알렉산드르 톱첸코(백서호 옮김), 『불타는 시절의 이야기』,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8.
- 위팔리 비안끼(리식 옮김), 『동화와 이야기』, 교육도서출판사, 1955.
- 이완 꼬즐로브(오상요·백서호 옮김), 『꼬림의 지하에서』, 조쏘출판사, 1957.
- 조수리, 『리가장의 변천』(양운한·백억 옮김), 국립출판사, 1956.
- 파제예브(조맹연 옮김), 『청년 근위대』(제1부)·(제2부), 민주청년사, 1954.
- 한면상 옮김, 『해방 후 알바니아 조형예술』, 『조선미술』 3월호, 국립미술출판사, 1960, 32-33쪽.

- 『경각성 있는 동무』(백억 외 옮김), 로동자신문사, 1956.
- 『당비』(백억 외 옮김), 민주청년사, 1957.
- 『들은 언제 눈뜰 것인가』(백서호 외 옮김),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0.
- 『래일의 오늘』(백서호 옮김), 국립출판사, 1960.
-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리훈재·백억 옮김), 로동자신문사, 1956.
- 『사형당한 불란서 공산당원들의 서한집』(리휘창 옮김), 문화전선사, 1949.
- 『사형당한 불란서 공산당원들의 수기』(김영길 옮김), 민주청년사, 1956.
- 『세계문학선집 6 모리외르 희곡선』(한면상·최규홍 옮김),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 『쏘련 단편소설집』(2)(한면상 외 옮김), 국립출판사, 1955.
- 『쏘련 희곡집』(전동혁 외 옮김), 조쏘문화협회, 1947.
- 『쏘련 희곡집』(1)(강필주 외 옮김), 국립출판사, 1954.
- 『쏘련 희곡집』(2)(강필주 외 옮김), 국립출판사, 1954.
- 『쏘련 희곡집』(3)(박영근 외 옮김), 국립출판사, 1955.
- 『쏘련 희곡집』(4)(김상오 외 옮김), 국립출판사, 1955.
- 『쏘련 희곡집』(5)(김덕인 외 옮김), 국립출판사, 1955.
- 『왕효화는 죽지 않았다』(백억 옮김), 로동자신문사, 1956.

3. 중국 문헌

- 세르게이 위로닌, 『불필요한 영광』, 연변교육출판사, 1957.
- 연변인민출판사60년도서간행물목록편찬소조 엮음, 『연변인민출판사 60년 도서간행물목록』, 연변인민출판사, 2011.
- 『중국조선문도서총목록』(1947-1991), 연변인민출판사, 1992.

<Abstract>

A Study on Baek Seok's Translated Works during North Korea

Park, Tae-i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rrect empirical foundations for the translation literature Baek Seok had achieved while living in North Korea. The discussion is three.

First, the translation literature of Baek Seok, which was previously known, has many problems. In the case of a book,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actual publication, or it cannot be seen as a white-seat publication. In a magazine article, duplicate records, names and publication dates were sometimes misplaced. If they were corrected immediately, 32 books and 51 individual writings were translated by Baek Seok, who lived in North Korea.

Second, the aliases of Baek Seok are known to be all six. Given the high weight, scope, and creative style of the translation, Park Il-pa and Ri Se-hui are the same people as Baek Seok. The remaining four are hardly white stones in translation attitudes, tone and period of activity.

Third, there are 26 books and 26 individual writings that have been translated under the name of Baek Seok. And there are 26 books and 15 separate writings under the pseudonym of Park Il-pa and Lee Se-hee. In addition, there are 11 types of books published outside of

* Kyungnam University.

North Korea. Therefore, the total amount of Baek Seok's translation is confirmed by adding new excavations to the previously known ones. Soon there will be 57 books and 85 individual writings. It is clear that Baek Seok is North Korea's biggest translator.

Hopefully, based on the newly created literature in this paper, a deep study of the translation literature of Baek Seok will be followed.

Key Words : Baek Seok, North Korea Literature, Translated Literature, Translated Literature of North Korea, Translation Theory of North Korea

■ 논문접수 : 2020년 3월 22일
■ 심사완료 : 2020년 4월 15일
■ 게재 확정 : 2020년 4월 17일